
碩士學位 請求論文

Lord Jim 에 나타난 자아실현의 문제

指導教授 金 秀 宗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英語教育 專攻

金 正 桓

1990年度

Lord Jim 에 나타난 자아실현의 문제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提出者 金正桓

指導教授 金秀宗

1990年 12月 日

金正桓의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1990年 12月 日



主 審 _____ ⑩

副 審 _____ ⑩

副 審 _____ ⑩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목 차

I. 서 론	1
II. Conrad의 인간관	5
III. 이상가치의 추구하고 부조리 상황	14
IV. 소외와 시련의 극복	31
V. 환상적 자아실현의 고립성	39
VI. 결 론	54
참 고 문 헌	57
영 문 요약	59

I. 서론

19세기 후반부터 일기 시작한 서구문명에 대한 회의와 반발은 소설문학에 있어서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변화는 Henry James, Marcel Proust, Sigmund Freud에 의해 주도되었다. 개인의 삶의 의미는 외부적 조건이나 상황에 반응하는 구체적인 행위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내면적 체험의 성격에 의해서도 파악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싹트기 시작했다. Joseph Conrad가 소설을 쓰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러한 전환기적 시대였다. 그는 인간의 내면세계를 탐구해 들어감으로써 삶의 본질적 의미를 규명하고자 했다.

Conrad는 기독교 윤리에 바탕을 둔 사회질서를 불신하고 개인의 가치보다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인간에 역할에 의문을 가졌다. 그는 *A Personal Record*에서 신(God)의 역할에 회의를 품고, 나아가 신의 의도가 비윤리적이 아닌가 의심한다.

The ethical view of the universe involves us at last in so many cruel and absurd contradictions... that I have come to suspect that the aim of creation cannot be ethical at all.¹⁾



신에 대한 회의적 태도로 인하여 Conrad는 삶에 대해 비관적 자세를 취하게 되었다. 인간은 자신에 의지함으로써 고독한 삶을 영위하지 않으면 안되며, 개인의 소외상태는 공동생활의 참여를 통해서도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인간은 불완전한 동물이며, 더우기 인간으로 구성된 사회는 범죄적 성격으로 조직화될 수 밖에 없다고 그는 말하고 있다.²⁾

Conrad는 인생에 대해 비관적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이상가치(ideal value)의 추구를 통해 불완전한 인간과 악의에 찬 사회를 개선하고자 했다. 그는

1) Joseph Conrad, *A Personal Record* (New York : Doubleday, Page & Co., 1925), p. 92.

2) Cedric T. Watts, ed., *Joseph Conrad's Letters to R. B. Cunninghame Graham* (Cambridge : The University Press, 1969), p. 117.

Sidney Colvin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의 모든 관심이 바로 이러한 이상가치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I have been called a writer of the sea, of the tropics, a descriptive writer, a romantic writer—and also a realist. But as a matter of fact all my concern has been with the “ideal” value of things, events and people. That and nothing else. The humorous, the pathetic, the passionate, the sentimental *aspects* came in of themselves...³⁾

이상가치에 대한 Conrad의 관심은 세기의 전환기에 발표된 *Lord Jim*⁴⁾에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이 작품은 여러 비평가들이 “심리소설” (“a psychological novel”)⁵⁾이라고 지적했듯이, 작가가 그려내고 있는 상황이라든가 주제면에서 현대성을 지니고 있다. Gustav Morf는 *Lord Jim* ‘회의와 공포에 시달리는 한 인간의 고백’이라고 평하고 있으며⁶⁾, Dorothy Van Ghent는 Jim의 이야기가 바로 ‘현대인의 정신적 소외’를 다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⁷⁾

Conrad는 *Lord Jim*을 통하여 인간의 삶에서 개인이 추구하는 이상가치의 의미를 새로운 각도에서 다루면서, 나아가 인간공유의 존재의 문제까지 살피고자 했다. 그가 말하는 이상가치의 개념은 단정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포괄적인 것이다. 인간 사회에 대한 불신을 극복하려 했던 그에게 있어서 “인간결속” (“human solidarity”)⁸⁾과 “성실성” (“fidelity”)⁹⁾은 이상가치의 중추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이상가치는 주인

3) Gerard Jean-Aubry, ed., *Joseph Conrad: Life and Letters*, Vol. II (New York: Doubleday, Page & Co., 1927), p. 185.

4) Joseph Conrad, *Lord Jim*, ed., Thomas C. Moser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1968) 이하 이 책내에서의 인용문은 ()속에 페이지만 명기할 것임.

5) Gustav Morf, *The Polish Heritage of Joseph Conrad* (New York: Haskell House, 1965), p. 152; Albert J. Guerard, *Conrad the Novelist* (Cambridge: Harvard Univ. Press, 1958), p. 126; Jocelyn Baines, *Joseph Conrad: A Critical Biography*, (Harmondsworth, Middlesex: Penguin Books; 1960), p. 295; Hugh Clifford, “The Genius of Mr. Joseph Conrad”, *North American Review* (LXXVIII (June, 1904), p. 851. 이하 전거(典據)를 밝혀야 할 인용은 “ ”로 표시하고, 전거(典據)표시가 불필요한 인용은 ‘ ’로 나타내고자 함.

6) Morf, p. 149.

7) Dorothy Van Ghent, *The English Novel: Form and Function* (New York: Rinehart and Co., 1953), p. 233.

8) Jean-Aubry, p. viii.

9) Joseph Conrad, *Notes on Life and Letters* (New York: Doubleday, Page & Co., 1925), p. 190.

공의 꿈으로 형상화되어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꿈은 자아를 실현하려는 의지의 표상인 것이다. Conrad는 Sorren Kierkegaard가 “인간을 그 자신이 되게 하는 자아” (“‘self’ which makes him [man] the man he is”)¹⁰⁾라고 말한 그러한 자아를 탐색하고, 실현과정에서 겪게 되는 소외와 부조리한 상황을 심리적 측면에서 그려내고자 한 것으로 생각된다.

Conrad는 직관적 자세로 행위의 내면에 숨겨진 인간의 본질에 접근하고자 했다. 그는 작중인물들의 다양한 관점을 통해 주인공이 안고 있는 문제의 복잡성을 드러내고 있다. 작가는 작품 속에서 개인의 이상과 현실의 괴리, 인간 지식의 한계성 그리고 판단의 상대성을 보여주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의미에서 Conrad가 그려낸 상황은 실존주의적 존재론과 깊은 관련성을 갖는다.

The idea of “existence” is part of the modern conception of the self... But existentialism is a very intense and philosophically specialized form of the quest for selfhood. It has a psychological subtlety and a sense of urgency that are its own. The distinctive existentialist vocabulary—turning on such categories as being, absurdity, choice, dread, despair, commitment—is like a situational survey or map courageously drawn at a moment of supreme crisis.¹¹⁾

실존주의 중심개념인 존재, 부조리, 선택, 공포, 절망, 실행 (commitment)은 Jim이 실존인으로서 경험하게 되는 핵심적 문제들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자아추구의 과정에 나타난 Jim의 문제를 실존주의적 입장에서 고찰하는 것이다. 존재의 핵심으로 여겨지는 자아의 실체와 자아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부조리가 여기서 검토될 것이다.

제 II장에서는 인간의 존재조건과 Conrad의 인생관을 실존주의 중심 개념들과

10) Sorren Kierkegaard, *Eithor/Or*, trans. Water Lowrie, Vol. II (Princeton : Princeton Univ. Press, 1944), p. 191.

11) Richard Ellmann and Charles Feidelson, Jr., *The Modern Tradition : Backgrounds of Modern Literature* (New York : Oxford Univ. Press, 1965), p. 803.

관련시켜 살펴보고, 제 III장에서는 Jim이 추구하는 이상가치의 양면적 특성과 Jim이 처한 부조리한 상황의 문제를 분석하고자 한다. 제 IV장에서는 소외된 Jim이 부조리한 상황을 긍정적인 존재조건으로 바꾸어가는 내적 변화의 과정을 살펴볼 것이며, 제 V장에서는 Jim이 추구한 꿈의 실체를 Stein의 관점에 비추어 밝히고, 비극으로 끝난 자아실현의 문제를 중요 이미지리의 분석을 통해 고찰하고자 한다.



II. Conrad의 인간관

Conrad는 우주적 질서라는 상황하에 인간의 내면적 본질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가 설정한 우주적 질서는 무신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 신의 존재를 신봉하는 세계에서 인간은 신의 섭리에 따라 보편적 가치를 영위하며, 그 귀결은 신의 뜻에 대한 무조건적 복종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절대적 진리란 그 뿌리를 잃은 것이며, 인간의 본질을 규정할 아무런 척도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인간의 삶은 부조리하다. 인간은 존재 자체에 의문을 갖게 된다.

Conrad의 무신론적 우주관은 기독교 중심의 전통적 질서에 대한 회의와 반발이 일던 사회적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19세기말에 프랑스의 일부 학자들은 신의 무용성을 주장하고 있다.¹²⁾ 무신론적 실존주의를 대변하는 J.P.Sartre도 '신이 없어도 달라질 것이 없다'고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In other words—and this is, I believe, the purport of all that we in France call radicalism—nothing will be changed if God does not exist ; we shall rediscover the same norms of honesty, progress and humanity, and we shall have disposed of God as an out-of-date hypothesis which will die away quietly of itself.¹³⁾

자연에 대한 Conrad의 견해는 19세기말 진화론자들과 마찬가지로 자연을 생존경쟁의 장으로 파악하고 있는 듯하다. 자연은 인간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을 파괴해 버린다. 냉혹한 자연의 질서 속에서는 자기 보존 본능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며 인간도 예외는 아니다. 인간은 문명의 힘으로 억제해 온 인간심리의 무의식적이고 본능적 요소라고 하는 내부적 위협과 우리의 안전을 끊임없이 노리는 외부적 위협 속에 살고 있다. 이러한 비윤리적 자연은 인간을 끊임없이 유혹하며 모순 속으로 빠뜨리고 인간의 안전과 절대적 확신감을

12) Ibid., p. 837.

13) Ibid.

위협한다.

These elemental furies are coming at him with a purpose of malice, with a strength beyond control, with an unbridled cruelty that means to tear out of him his hope and his fear, the pain of his fatigue and his longing for rest : which means to smash, to destroy, to annihilate all he has seen, known, loved, enjoyed, or hated ; all that is priceless and necessary—the sunshine, the memories, the future ; which means to sweep the whole precious world utterly away from his sight by the simple and appalling act of taking his life. (p. 7)

신에 대한 Conrad의 회의적 태도는 근본적으로 Nietzsche와 Sartre가 취하고 있는 무신론적 우주관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 19세기 실존주의 한 주류를 이끌었던 독일의 철학자 Nietzsche는 '신은 죽었다'고 선언했다. Sartre 역시 하나의 전제로서 신의 존재에 부정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는 이 부정적 결론에 도달하기 위한 논의는 하지 않고 다만 '신을 논의하는 것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말하고 있다.¹⁴⁾

신이 없다면 절대적인 인간의 본질은 없다. 초월적이고 객관적인 가치 기준이 우리 앞에 확립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신의 계율이나 이상적인(platonic) 형상도 없다. 모든 것이 허용되었으므로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를 결정해야만 한다.¹⁵⁾ Sartre는 '신이 없음으로 인해서 인간은 자유롭다'고 강조하고 있다.¹⁶⁾ 무신론자에게 있어서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주체는 바로 그 자신이라는 것이다. 인간의 본질에 대한 Conrad의 입장도 이러한 실존주의자들의 주장과 일치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Tony Tanner의 비평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And yet Conrad was deeply concerned about a man's moral dress even when he was invisible to the rest of the world. The behaviour of the crowd held no interest for Conrad. And to the question, how should one behave in the dark, he had one

14) Jean-Paul Sartre, *Being and Nothingness*, ed., Hazel Barnes(London : Methuen, 1927) , p. 615.

15) Ellmann, p. 837.

16) Ibid.

firm answer—you steer.¹⁷⁾

‘자기 스스로가 알아서 처신하라’고 강조한 Conrad의 입장은 객관적 진리를 부정한 것이다. 그는 자신의 편지에서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낸 모든 공식과 원칙들을 환상이라고 부정하고 자신의 판단에 입각한 인생관을 강조하고 있다.

I have often suffered in connection with my work from a sense of unreality, from intellectual doubt of the ground I stand on.

Everyone must walk in the light of his own heart's gospel. No man's light is good to any of his fellows. That's my creed from the beginning to end. That's my view of life—a view that rejects all formulas, dogmas and principles of other people's making. These are only a web of illusions.¹⁸⁾

이러한 의미에서 인간은 자유를 바탕으로 주어진 조건을 끊임없이 초월하는 존재이다. 무신론적 실존주의자들은 실존주의 제 1원리로서 “존재는 본질을 선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¹⁹⁾ 인간은 언제나 자기 자신의 밖에 있으므로 “초월적 목적”(“transcendent aims”)을 추구함으로써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Man is all the time outside of himself : it is in projecting and losing himself beyond himself that he makes man to exist ; and, on the other hand, it is by pursuing transcendent aims that he himself is able to exist. Since man is thus self-surpassing, and can grasp objects only in relation to his self-surpassing, he is himself heart and center of his transcendence.²¹⁾

여기서 주목할 것은 초월의 핵심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점이다. 줄에 매달린 추가 원을 그리며 뛰쳐 나가려고 하듯이, 중심 밖에 선 존재는 원 중심에 있는 자신을 초월하고자 한다. 원의 중심은 다름아닌 자아(self)요, 그 초월의 목적은

17) Tony Tanner, *Chicago Review*, XI (Winter-Spring, 1963), p. 138.

18) Ibid.

19) Jean-Paul Sartre, *Existentialism and Humanism* (London : Methuen & Co., 1984), p. 28 ; Ellmann, pp. 827~28.

20) Ibid., p. 869.

21) Ibid.

자아실현 (self-attainment)에 있다. Sartre는 인간 존재의 출발점을 개인의 주체성 (the subjectivity)에 두고 있다. 주체성은 자아의 인식에서 온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라고 의식을 강조한 Decarte의 주장도 '주체성'의 핵심이 자아의 인식에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인간의 자기초월적 가치는 비윤리적 우주상황에서 한계성을 지니며, 이는 곧 부조리로 요약된다. 부조리는 외부적 조건과 본능에서 오는 인간내부의 불완전성을 함께 지니고 있다.

Camus는 부조리를 세상과 인간 사이의 갈등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부조리가 인간의 삶에 깊숙히 스며들어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부조리의 외적 측면을 강조한 것이다. Nietzsche 역시 부조리한 현실을 삶의 필연적 조건으로 받아 들이고 있다.

We are, in fact, fundamentally inclined to maintain that the falsest judgments (to which belong the synthetic *a priori* judgments) are the most indispensable to us, that man cannot live without accepting the logical fictions as valid, without measuring reality against the purely invented world of the absolute, the immutable, without constantly falsifying the world by means of numeration. That getting along without false judgments would amount to getting along without life, negating life. To admit untruth as a necessary condition of life : this implies, to be sure, a perilous resistance against customary value-feelings. A philosophy that risks it nonetheless, if it did nothing else, would by this alone have taken its stand beyond good and evil.²²⁾

또하나의 외적 갈등 요인은 개인의 행동과 사회 속에서의 역할 사이에 빚어지는 모순성이다. Conrad의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거대한 사회적 세력에 의해 무시되는 고통스러운 체험을 한다. 그들의 신념과 행동을 무너뜨리는 사회적 세력들은 그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결국 그들을 파멸시키고 만다. 사회에 대한 작가의 불신은 인간의 불완전성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공동생활이 개인을 구제하기는 커녕 그 자체

22) Albert Camus, *The Myth of Sisyphus*, tr. Justin O'Brien (New York : Alfred A. Knopf, 1955), p. 38.

23) Friedrich Nietzsche, *Beyond Good and Evil*, tr. Marianne Cowan (Chicago : Henry Regnery Company, 1955), p. 126.

에 있어서 하나의 타락한 제도로 인간의 존재를 위협하는 부조리의 외적 요소가 되고 있다.

그러나 Conrad가 생각하는 부조리의 근원은 내적 요소에 비중을 두고 있다. Conrad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인간의 본질적 취약점을 지닌다. 인간의 불완전성을 구성하는 고독감이나 공포, 허영심이나 야심, 물질적 욕망, 지배욕, 환상 등과 같은 내적 부조리 요소는 비이성적 성향을 띤다. 내적 부조리는 인간 본능에 내재된 악(evil)의 요소이다. *Lord Jim*에서도 이러한 유형의 악인들(evil men)이 나타나고 있다고 E.K.Hay는 지적하고 있다.

The evil in *Lord Jim* is one thing on the surface and another beneath our grasp. It is of course the evil of men who have no sense of loyalty to anything, like the villainous *Patna* officers and like Cornelius and Brown. Less recognizably perhaps, it is the evil of "realists" like Chester and Briery, who think there is nothing to life but external facts. But there is evil also in the impulses we uncritically call "good", generous yearnings like Jim's heroic ideal, that may give life its whole meaning but may also destroy the very things it hopes to save.²⁴

Conrad 작품에서 보여지는 인간 내부의 악은 인간에 대한 불신에서 오는 것이다. 이러한 그의 견해는 Nietzsche의 주장과 상당한 유사성을 지닌다. Nietzsche 역시 '악은 인간 내부의 또다른 모습으로 인간의 존재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We imagine that hardness, violence, slavery, peril in the street and in the heart, concealment, Stoicism, temptation, and devilry of every sort, everything evil, frightful, tyrannical, brutal, and snake-like in man, serves as well for the advancement of the species "man" as their opposite.²⁵

24) Eloise Knapp Hay, "Lord Jim : From Sketch to Novel", *Comparative Literature*, XII (Fall, 1960), p. 308.

25) Nietzsche, p. 50.

이처럼 부조리는 현실적 측면의 외적요소와 인간 내면에 깊숙히 존재하는 악의 내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 이 두 가지 요소는 서로 의기투합하여 얼킨 채 인간의 존재를 위협한다. 부조리는 인간 존재와 대립되는 필연적 조건으로서 자아를 실현하는데 장애요소가 된다. 그 속에 던져진 실존인은 부조리한 상황에서 극심한 자기모순적 고립을 겪게 된다.

Conrad에 있어서 인간소외의 문제는 그 자신의 생애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의 부모는 일찌기 세상을 떠났고, 고아가 된 후 헌신적인 후견인이었던 외숙의 도움을 받으면서 자라났다. 그는 10대 후반에 상선을 타기 시작했으며 오랫동안 원양항해를 하면서 자기에 비해 지적 능력이 월등히 떨어지는 선원들 사이에서 생활하며 정신적, 육체적 소외감을 경험했다. 영국으로 귀화한 후 영어를 모국어로 채택했지만 이 새로운 조국과 언어는 소외감을 더욱 심화시켰다. 또 Jessie라는 여인과의 결혼마저도 그의 뿌리 깊은 소외감을 해소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

Conrad는 무엇보다도 소외된 작가였다. 그는 소설기법을 혁신한 작가로서 그의 소설관은 당대의 다른 작가들보다 앞서고 있는데, 바로 그런 이유에서 당대의 문단에 서도 소외되었다. 그러므로 자연히 당시의 중요작가인 D.H.Lawrence, James Joyce, Virginia Woolf 등과도 교류가 없었다.

신이 없는 세계에서 인간이 처한 부조리 상황과 고독에 대한 확신은 Conrad의 인생관에 비추어 회의주의로 물들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신념은 하나의 신화이고 믿음은 안개처럼 변한다. 사고는 사라지고 말은 한 번 내뱉으면 죽어 버리고 어제의 기억은 내일의 희망만큼 덧없다.”²⁶⁾라고 자신의 사상이나 신념까지 불신하고 있다.

Conrad의 사상적 배경이 되고 있는 또하나는 그의 비극적 인생관이다. 성격을 규정지을 만큼 그의 비관주의적 태도는 젊은 시절부터 나타난다. 1960년대에 간행된 외숙부 Thaddeus Bobroski의 서간문에 의하면, Conrad는 마르세이유 시절에 21세라

26) "Faith is a myth and beliefs shift like mists on the shore ;thoughts vanish ;words once pronounced, die ;and the memory of yesterday is as shadowy as the hope of tomorrow." Watts, p. 117.

는 나이로 권총 자살을 기도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²⁷⁾ 이와 같은 자기파괴적 성벽은 아프리카 Congo에서 돌아온 직후 외숙부에게 “인간은 결국 죽을 운명이니 젊어서 죽는 것이 낫다” (“It is better to die young as in any case one is bound to die sometime.”)²⁸⁾라고 말하는 데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비관주의적 태도는 그가 첫 소설을 쓰던 시절에 “나는 왜 존재하는지 궁금하다” (“I wonder why I exist?”)²⁹⁾라고 묻는데에서 잘 알 수 있다. Richard Curle은 깊은 도덕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본질적으로 비관주의자였다고 한다 (“essentially pessimistic at heart”)⁴⁰⁾

Conrad의 비관적 태도의 특성은 그의 작품 속에 나타나고 있는 숙명론적 색채이다. 그는 Russel에게 보낸 편지에서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숙명론에 대한 자신의 뿌리깊은 인식과 잠시 동안이나마 맞설 수 있을 정도로 확신을 주는 그 무엇을 찾아보지 못했다고 말했다.³¹⁾

Conrad의 인간의 비관론을 특징지우는 것은 그 속에 깔린 절망적 어조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물들어 있다는 점이다. 그는 삶의 괴로움을 깊숙히 인식하고 있는 비관론자였다. 그러나 이러한 비관적 태도는 그대로 끝나지 않고 그로 하여금 휴머니스트가 되게 하였다. 그에게 철학적 체계가 있었다면 그 체계의 양극을 이루는 것은 휴머니즘과 비관주의라고 말할 수 있다. 그가 도덕적 작가로서 성실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그에게 휴머니스트로서의 기본적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의 세계관 속에 휴머니즘의 저류가 흐르고 있었다는 사실은 H.G. Wells에게 보낸 편지 속에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The difference between us, Wells, is fundamental. You don't care for humanity but think they are to be improved. I love humanity but know they are not.³²⁾

27) Zdzislaw Najder, ed., *Conrad's Polish Background: Letters to and from Polish Friends*, trans., Halina Carroll (London: Oxford Univ. Press, 1964), p. 177.

28) Ibid., pp. 150~151.

29) John A. Gee and Paul J. Sturm, trans. and ed., *Letters of Joseph Conrad to Marguerite Poradowska* (New Haven: Yale Univ. Press, 1940), p. 72.

30) Richard Curle, “Joseph Conrad: Ten Year After”, *Virginia Quarterly Review*, 10 (1934), p. 420.

31) Bertrand Russel, “Joseph Conrad”, *Portraits from Memory*, 5, *Listener*, 50 (17 September, 1953), pp. 462~63.

32) Baines, p. 132.

Conrad의 휴머니즘적 태도는 작품에서 인간의 동정심에 대한 호소로 나타난다. *Lord Jim* 에서 자주 언급되는 'one of us' 개념은 작가의 휴머니즘을 구체화시킨 것으로, Jim의 문제를 인류 전체의 문제로 보편화하여 독자의 동정심과 동정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한 작가의 의도는 그의 자서전적 기록에서 드러나 있다.

I would not like to be left standing as a mere spectator on the bank of the greatest dream carrying on-ward so many lives. I would fare claim for the faculty of so much insight as can be expressed in a voice of sympathy and compassion.³³⁾

이상에서 볼 때 세상을 바라보는 Conrad의 인생관은 두 개의 면을 가진 동전처럼 양면가치의 지향으로 나타난다.³⁴⁾ 이는 무신론적 우주관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간에게 두 가지 상반된 존재조건을 제시한다. 그 하나는 인간 존재의 긍정적 측면이다. 신이라는 절대적 진리에서 벗어나 인간은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책임지고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자유인으로서 인간은 자신의 삶의 가치를 주체적으로 추구하고 그 속에서 참된 존재의 의미를 구현하고자 한다.

양면가치의 다른 한 면은 인간의 존재를 위협하는 어두운 그림자이다. 신의 손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진 만큼 인간은 "버려진" ("forlorn, forsaken, abandoned")³⁵⁾ 존재다. 비윤리적 우주질서 속에서 자연과 현실은 인간의 꿈을 위협하는 외적 부조리 요소로 작용한다. 그에 못지 않게 인간 존재를 위협하는 것은 인간 심리의 깊은 곳에 내재해 있는 악의 요소이다. 이로 인해 인간의 고립은 절대적 조건이 된다. 인간의 불완전성과 삶의 부조리한 부정적 측면은 Conrad의 인생관에 있어서 회의적 비판론을 낳고 있으며 그의 모든 작품에 깊이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상호모순된 양면가치는 휴머니즘에 입각한 경건함을 견지함으로써 Conrad는 도덕적 작가의

33) Joseph Conrad, *A Personal Record: Some Reminiscences*, P. XV.

34) "the two Conrads, the Conrad who praised the simple ideas and sincere emotions and the Conrad of the neurotic illness and the dark inwardness." Robert Penn Warren, "On Nostromo", *The Art of Joseph Conrad: A Critical Symposium*, ed., R. W. Stallman (Athens, Ohio: Ohio Univ. Press, 1982), p. 216.

35) Ellmann, pp. 837~38.

일면을 보여줄 수 있었다.

인간의 문제를 존재의 문제로 파악한 Conrad의 우주관은 무신론적 실존주의, 특히 Sartre의 입장과 그 궤를 같이 한다. Conrad는 자기초월적 자아실현과 더불어 약점을 지닌 인간들의 결속을 강조하는 휴머니즘을 추구하고 있다. Conrad의 인간에 대한 깊은 사려는 실존주의적 휴머니즘("existential humanism")³⁶⁾을 지향한 Sartre의 철학정신과 크게 부합된다 하겠다.



36) "This relation of transcendence as constitutive of man(not in the sense that God is transcendent, but in the sense of self-surpassing) with subjectivity(in such a sense that man is not shut up in himself but forever present in a human universe)-it is this that we call existential humanism." Ibid., pp. 869~70.

Ⅲ. 이상가치의 추구하고 부조리 상황

Conrad는 비판론적 세계관과 대립되는 이상가치 추구를 통해 인간의 개선 가능성을 찾고자 했다. 이상가치는 Conrad의 도덕적 비전을 이루는 작가의 사상적 배경이다. Conrad의 이상가치는 *Lord Jim*에서 Jim의 꿈으로 구체화된다. Jim은 비윤리적 우주질서 속에 던져지고, 현실이라는 부조리 상황은 끊임없이 존재 그 자체를 위협한다. 그 과정에서 Jim의 꿈은 상당한 시련을 겪게 된다. Jim은 이에 굴복하지 않고 온몸으로 자신의 꿈을 지켜나가고자 했다.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기에 수많은 유혹과 위협을 뿌리치고 죽음으로써 항거하고자 했는가? 인간공동체의 신뢰를 저버리고 힘들게 얻은 지위까지 버리면서 죽음을 감수한 Jim의 선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Jim이 지닌 꿈의 가치를 먼저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Jim의 생애를 방향짓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모티브는 그의 성격이다. Jim의 성격은 이 소설의 시작에서부터 매우 인상적으로 묘사된 그의 외관상의 특징을 통해서 암시되고 있다.

He was an inch, perhaps two, under six feet, powerfully built, and he advanced straight at you with a slight stoop of the shoulders, head forward, and a fixed from-under stare which made you think of a charging bull. His voice was deep, loud, and his manner displayed a kind of dogged self-assertion which had nothing aggressive in it. It seemed a necessity, and it was directed apparently as much at himself as at anybody else. He was spotlessly neat, appaerelled in immaculate white from shoes to hat, and in the various Eastern ports where he got his living as ship-chandler's water-clerk he was very popular. (p. 3).

여기서 추출할 수 있는 Jim의 성격상의 특징은 그의 풍채와 거동, 그리고 목소리에서 느낄 수 있는 바, 돌진하는 황소를 연상시키는 자기주장이라 하겠다. 이는 일차적으로 이기주의를 뜻하는 것이지만 당신에게로 곧장 나아갔다는 데에서 느낄 수 있는 것처럼 그의 우직성, 또는 단순성을 암시하기도 한다. Jim의 자기 중심주의

가 공격적인 것은 아닌 듯 싶다. 아마도 어떤 필연성에 의해 무엇보다도 자신을 향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그의 옷차림은 결벽성은 물론이려니와 나아가 완전 지향주의와 이상추구의 성향을 엿보게 한다.

Jim의 묘사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꿈으로의 지향이 타고난 선천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바다에 빠지듯이 꿈속에 빠진다” (“A man that is born falls into a dream like a man who falls into the sea.”) (p. 130)라는 Stein의 말처럼 Jim의 존재는 꿈과 따로 구분해서는 생각할 수 없다. Ghent는 Jim이 “한 가지 생각에 사로잡힌 극히 단순한 인간” (“He is nevertheless and extraordinary simplified type, obsessed with a single idea...”) ³⁷⁾이라고 말하면서 그의 단순한 성품이 꿈을 좇도록 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Jim의 꿈 추구에는 풍부한 상상력을 소유했다는 그의 기질이 원천적 배경이 되고 있다. 그의 꿈은 내부에서 일어나며 다소 충동적인 상상력이 강하게 작용한다. 그는 어린 시절에 가벼운 휴일문학을 탐독하고서 스스로 로맨틱한 영웅이 되기를 꿈꾸었고 이 꿈을 실현하기 위해 간부 선원에 지원했다.

and when after a course of light holiday literature his vocation for the sea had declared itself, he was sent at once to a “training-ship for officers of the mercantile marine.” (p. 4)

자연도 Jim의 꿈을 조장하는 중요한 외적 요소로 작용한다. 조그만 사고로 입원해 있었을 때 몸 상태가 좋지 않았음에도 창문 너머로 불어오는 “끝없는 꿈” (“endless dreams”) (p. 8)을 암시한듯한 가벼운 미풍을 맞으면서 병원을 빠져 나왔다. Patna 호가 순조롭게 항해를 하고 있을 때에도 고요의 바다를 바라보면서 상상적인 꿈을 키운다. 전지적 관점에서 쓰여진 이 부분에서 Conrad는 자연이 Jim의 모험적인 상상의 나래를 조장하고 있음을 암시해 주고 있다.

He sighed with content, with regret as well at having to part from that serenity

37) Ghent, p. 230.

which fostered the adventurous freedom of his thoughts. (p. 13).

Jim의 상상력을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면 거기에는 낭만적 영웅주의(romantic heroism)가 근원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³⁸⁾ 그의 삶은 낭만적인 해상생활의 상상속에 묻혀 있다. 그는 자신을 용감하고 희생심 깊은 행위를 위해 선택된 인간으로 생각한다.

He saw himself saving people from sinking ships, cutting away masts in a hurricane, swimming through a surf with a line, or as a lonely castaway, barefooted and half naked, walking on uncovered reefs in search of shell-fish to stave off starvation. He confronted savages on tropical shores, quelled mutinies on the high seas, and in a small boat upon the ocean kept up the hearts of despairing men—always an example of devotion to duty, and as unflinching as a hero in a book. (p. 5).

Jim의 낭만적 영웅주의는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고양된 이기주의로서 소외와 갈등의 주원인을 제공한다. 훈련선 망루에서 내려다 보는 Jim의 영웅적 자세는 다른 선원들을 무시하고 있다. Jim은 지상에서 함께 호흡을 하며 어깨를 마주하면서도 그들에 대해 우월성을 지니고 있다.

those men did not belong to the world of heroic adventure ; they weren't bad chaps though. Even the skipper himself... His gorge rose at the mass of panting flesh from which issued gurgling mutters, a cloudy trickle of filthy expressions ; but he was too pleasurably languid to dislike actively this or any other thing. The quality of these men did not matter ; he rubbed shoulders with them, but they could not touch him ; he shared the air they breathed, but he was different... (p. 16.)

Jim은 항상 그들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자 한다. Jim 자신은 그들과 다른 부류의 인간임을 강조한다. ("there was nothing in common between him[Jim] and these men.") (p. 49). 낭만적 영웅주의를 조장하는 상상력은 이상가치 구현을

38) Hay, p. 290.

위한 꿈의 추구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현실에서는 오히려 Jim의 존재를 위협하는 부정적 요소로 작용한다. Jim에게 최초의 시련을 가져다 준 사건은 훈련선에서 일어났다. 실제 상황에서 그의 영웅주의적 자아는 의도적 자연에 홀린 듯 굳어져 버린다.

"Something's up. Come along."

He leaped to his feet. The boys were streaming up the ladders. Above could be heard a great scurrying about and shouting, and when he got through the hatchway he stood still—as if confounded. (p. 5)

Jim의 영웅적 환상은 꿈속에서는 활동적이지만 실제 상황계 부딪치면 마비된다. 물론 지나치게 팽창된 자아에 원인도 있지만 Jim이 지닌 상상력의 두 가지 특성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Hay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At this point in the finished book, however, we realize that for Jim "imagination" has two striking features, has in fact a dual nature. On one side, so to speak, it carries him away from "reality" with images of his own possible heroic actions. On the other, when an emergency strikes, his imagination magnifies the horror beyond all grasp. Both aspects of this faculty working together rob him of the motor responses he needs in order to deal with experience.³⁹

그 한 가지는 Jim을 현실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점이다. Jim의 마비는 무능력한 정신작용이 아니라 지나친 상상력의 결과이다.⁴⁰ 자신의 능력에 대한 과신은 결정적 순간에 현실과 상상의 세계 사이에서 균형을 잃게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가 본 환상의 이미지는 실제 의식한 것보다 훨씬 생동감을 준다.⁴¹ 이로 인하여 그는 그 자리에 마비된 채 서있게 된다. Patna호 사건 후 Jim은 무력한 자신의 내적 상태를 Marlow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39) Ibid., pp. 292~93.

40) Ibid., p. 291.

41) Ibid.

He told me that his first impulse was to shout and straightway make all those people leap out of sleep into terror ; but such an overwhelming sense of his helplessness came over him that he was not able to produce a sound. (p. 52)

상상력이 지닌 또하나의 특징은 긴급사태시 공포를 지나치게 확대한다는 점이다. 상상력이 만들어낸 공포는 사건의 진상을 급박하게 몰고가 그가 경험한 모든 바다의 재앙을 일깨워 준다. Marlow 역시 Patna호에서 Jim이 두려워한 것은 상상력이 만들어낸 긴급한 상황이었다고 말한다.

He was not afraid—oh no ! only he just couldn't—that's all. He was not afraid of death perhaps, but I'll tell you what, he was afraid of the emergency. His confounded imagination had evoked for him all the horrors of panic, the trampling rush, the pitiful screams, boats swamped—all the appalling incidents of a disaster at sea he had ever heard of. (p. 54)

긍정과 부정의 양면을 지닌 상상력은 인간의 남다른 특성이요, Jim의 낭만적 기질에서 온 것임을 알 수 있다. 어린 시절 훈련선 사고에서 경험했던 정신적 패배 이후에도 환상을 고집하는 것은 Jim의 존재를 위협할 뿐이다. 우쭐대는 영웅심과 현실의 괴리에서 오는 자기기만은 Jim의 운명을 급박하게 몰아놓고 늘 그에게 더 많은 좌절감을 안겨준다.

전지적인 시점에서 쓰여진 전반부에서 Conrad는 Jim이 지닌 낭만적 자아가 현실 속에서 실패할 것임을 암시해 주고 있다. 현실 적응과정에서 보여주는 Jim의 결정적 결점은 자기 자신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함에 있다. 그러나 Jim은 풍부한 상상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존재가치를 우직하게 추구한다. Conrad도 Jim이 추구하고자 한 꿈의 실체가 그의 단순하고 민감한 성격에 나타나있는 “감상적 존재” (“sentiment of existence”) (p. 1)의 추구에 있음을 Author's Note에서 밝히고 있다.

It was only then that I perceived that the pilgrim ship episode was a good starting-point for a free and wandering tale ; that it was an event, too, which could conceivably colour the whole “sentiment of existence” in a simple and sensitive char-

acter. But all these preliminary moods and stirring of spirit were rather obscure at the time, and they do not appear clearer to me now after the lapse of so many years. (p. 1)

Jim의 꿈은 상상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단순한 꿈의 영역을 넘어 인생에 있어서의 진정한 도덕적 가치를 형성하는 하나의 실체로 여겨진다. 그것은 Jim이 추구한 '감상적 존재'의 본질이며 자아의 핵심인 것이다.

He loved these dreams and the success of his imaginary achievements. They were the best parts of life. its secret truth, its hidden reality. They had a gorgeous virility, the charm of vagueness, they passed before him with an heroic tread; they carried his soul away with them and made it drunk with the divine philtre of an unbounded confidence in itself. (p. 13)

우리가 주목할 것은 Jim의 낭만적인 상상력이 그를 영웅으로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그를 과멸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Jim이라는 인물은 전통소설의 낭만적인 주인공과는 달리 이상과 현실간의 괴리를 절감하며 정신적 분열 혹은 파탄을 겪고 있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사실이다. 초기의 비평가들은 기존소설 속의 견고한 성격을 지닌 주인공들과는 달리, Jim은 어딘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고 인격적 분열까지 보이고 있음에 주목하고 있다.⁴²⁾

Jim의 꿈은 19세기 개인적 자아의 이상을 형성하는데 큰 몫을 맡은 낭만주의 운동의 숭고한 열망을 담고 있다. 그것은 현재의 세계와 자신을 개선하고자 하는 인간의 공통된 욕망이 Conrad의 휴머니즘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Jim의 꿈은 실패와 비극을 무릅쓰고 인간의 한계를 뛰어 넘고자 하는 자기초월적 존재가치라고 할 수 있다.

실존적 이상가치를 지닌 Jim의 꿈은 극한상황에서 그 의도와는 달리 현실과의 괴리 속에서 시련을 겪는다. 비윤리적 우주질서에 놓인 Jim이 부딪치는 부조리 상황은 일과성이 아닌 인간 존재에 있어서 절대적 조건처럼 보여진다. 꿈은 현실성을

42) Norman Sherry, ed., *Conrad: The Critical Heritage* (London: R & RP, 1963), p. 112.

지니고 있을 때에 그 가치가 있다. Jim이 가진 꿈은 낭만성이 가득하므로 부조리라는 여과장치를 통해 질적인 변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인간의 내면세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Conrad는 부조리한 상황에 놓인 Jim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그 부조리의 근원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를 사실적 측면을 넘어 인간 내면세계의 관점에서 탐색하고 있다.

Jim이 최초로 부조리를 겪은 것은 어린 시절에 있었던 두 개의 사소한 사건에서였다. Patna호 사건의 예고를 느끼게 하는 이 사건에서 영웅적인 모습을 꿈꿔온 Jim은 행동을 요구하는 결정적 순간에 실행을 옮기지 못함으로써 Jim의 이상적 자아가 현실의 자아성과 일치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Ghent는 그의 꿈과 현실 사이에는 뚜렷한 양극성이 설정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The two incidents in Jim's early sea training, the storm, in Chapter 1, when he was "too late", and in Chapter 2, his disablement at the beginning of a hurricane week, when he "felt secretly glad he had not to go on deck", counterpoint his belief in himself with actualities of frustration. A certain distinct polarity is already established, between his dreams and the "facts".⁴³⁾

인명 구조에 참여할 기회를 놓친 후에 "패배의 고통" ("the pain of conscious defeat") (p. 6)을 느꼈지만 "Jim에게 커다란 자기인식이나 충격을 주지 못했다" ("He could detect no trace of emotion in himself") (p. 7) 그는 다른 사람들의 행위를 저열한 것으로 치부하고 만다.

He could detect no trace of emotion in himself, and the final effect of a staggering event was that, unnoticed and apart from the noisy crowd of boys, he exulted with fresh certitude in his avidity for adventure, and in a sense of many-sided courage. (p. 7)

그는 젊은 나이에 일등 항해사가 된다. 그러나 한 인간의 내적 가치와 기질을 낱알이 드러내는 바다에서 한번도 테스트를 받지 않은 채였다.

43) Ghent, p. 239.

When yet very young, he became chief mate of a fine ship, without ever having been tested by those events of the sea that show in the light of day the inner worth of a man, the edge of his temper, and the fibre of his stuff ; that reveal the quality of his resistance and the secret truth of his pretences, not only to others but also to himself. (p. 7)

Patna호의 항해는 Patusan과 더불어 Jim의 참모습을 시험하고 드러내준 한계상황이다.⁴⁴⁾ Conrad가 설정한 극한상황은 외부세계가 지닌 비윤리적 이중성과 인간 내부의 부조리를 드러내준다. 그것은 주인공의 자유의지를 시험하고 선택을 강요함으로써 인간 실존의 양상을 보이게 한다. 고요한 바다는 Jim에게 안전감을 심어주며 상상속의 용감한 행위를 조장하는 외적 부조리로 나타난다.

"How steady she goes !" thought Jim with wonder, with something like gratitude for this high peace of sea and sky. At such times his thoughts would be full of valorous deeds : ... He sighed with content, with regret as well at having to part from that serenity which fostered the adventurous freedom of his thoughts. (p. 13)

외견상 평화스럽게 보이는 자연은 인간의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릴 음흉한 일면을 동시에 지닌 채 Jim의 존재를 위협한다.

Under a serene sky, under a sky scorching and unclouded, enveloped in a fulgor of sunshine that killed all thought, oppressed the heart, withered all impulses of strength and energy. (p. 10~11)

800명의 회교도를 태운 Patna호는 바닷물 속의 표류물에 부딪쳐 침수 직전에 이르는 순간 Jim은 자신의 의도와는 달리 다른 선원과 함께 구명 보우트에 뛰어 내리고 만다. 그것은 이성이 개입할 틈도 없이 오직 본능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였다. "뛰어내린 것 같다" ("I had jumped..." he checked, himself, averted his gaze... 'It seems,' he added.") (p. 68)라는 Jim의 설명에서 무의식적 힘에 의해 뛰어내렸

44) Guerard, p. 128.

다고 Jim은 주장한다. Daiches도 Jim의 행위가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⁴⁵⁾

Jim이 Patna호에서 뛰어내린 행위는 자신의 자유의지(free will)가 없는 본능적 행위이므로 참된 선택(choice)이 아니다. Kierkegaard도 참된 선택이 연기될 때는 무의식적으로 행하게 되고 그것은 인간 내부의 애매한 힘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다.⁴⁶⁾ 그는 실존주의 입장에서 선택을 윤리적 선택(ethical choice)과 심미적 선택(aesthetic choice)으로 구분하고 있다. Jim이 뛰어내린 행위는 바로 '심미적 선택'에 해당된다. 그의 행위는 생각할 여지도 없이 이루어진 즉각적인 것이요, 비실존적 선택인 것이다. Kierkegaard의 심미적 선택에 대한 설명은 마치 Patna호에서 뛰어내린 Jim의 상황을 실존주의 입장에서 분석한 것과 같은 묘한 여운을 내포하고 있다.

But by neglecting to choose they drift into a limbo of others' choices, on the obscure choices of their own unconscious, and give up all chance of becoming themselves. A living creature cannot preserve a blank personality. Nor can the choice, when made, be merely a day-to-day preference, for this is what Kierkegaard calls "aesthetic" as opposed to "ethical" choice, a choice that is actually no choice and leaves a man still submerged in the multiplicity of immediate experience.⁴⁷⁾

자신의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만이 참된 자아를 얻을 수 있다. 참된 노력과 진지한 자세로 선택해야만이 새로운 자아를 실현할 수 있다고 실존주의자들은 말하고 있다.

By choosing, even by choosing wrongly, if that is done with earnestness and struggle we become new selves that could not have existed until the choice was made.⁴⁸⁾

Patna호 사건은 Jim의 의식적 의지가 무의식적 실제 행동에 의하여 좌절되고마는

45) "Jim will never admit that it was a decision ;it was something that happened to him"
David Daiches, *The Novel and the Modern World* (Chicago : Univ. of Chicago Press, 1960) , p. 34.

46) Kierkegaard, p. 139.

47) Ellmann, p. 805.

48) Ibid.

비극적 사건이다.⁴⁹⁾ Jim의 윤리적 자아가 자기 보존 본능에 바탕을 둔 현실적 자아에 의해 배반당한 것이다. 그는 의도와는 다른 자신의 행위를 통하여 암흑의 힘(dark power)을 발견하게 된다. 즉, Jim의 내적 부조리가 '암흑의 힘'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근원은 Jim 내부의 선천적 기질에 비롯되고 있다. 암흑의 힘은 인간 내부의 부조리를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Jim의 'jump'가 암흑의 힘에 의한 것임은 난파선의 이미지에서 알 수 있다. Ghent는 Patna와 부딪친 유기물을 Jim을 뛰어내리게 한 충동과 동일시하고 있다. 이러한 충동은 난파선처럼 의식밑에 잠겨 있으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불쑥 솟아오른 것이다.

The sunken wreck that strikes the *Patna* is one such epiphany in *Lord Jim*, and this manifestation of 'dark power' is coincident with and symbolically identifiable with the impulse that makes Jim jump, an impulse submerged like the wreck, riding in wait, striking from under. Outer nature seems, here, to act in collusion with the hidden portion of the soul.⁵⁰⁾

암흑의 힘이 드러났음은 선장이 입고 있는 잠옷에서도 알 수 있다. Ghent는 잠옷을 입고 있는 선장의 모습이 Jim의 억눌린 심리를 반영한 악(evil)이라고 주장한다.

Vanishing with the gharry is complete ; that the captain wears a sleeping suit (like the murderer in "The Secret Sharer") emphasizes the psychological, that is to say spiritual, symbolism of his evil ; he is another epiphany, a "showing" from the daemonic underground of the psyche-but he is only that, and the psyche, Jim's psyche, is more than the obscene man in the sleeping suit.⁵¹⁾

결국 Patna호 사건은 Jim의 영혼을 결정함에 있어서 두 가지 상반된 힘이 있음을

49) Guerard, p. 140.

50) Ghent, p. 236.

51) Ibid., p. 240.

보여주고 있다. 내가 뛰어내린 것 같다. ("I had jumped... It seems") (p. 68) 라는 Jim의 말에서 마치 남의 얘기를 하는 듯한 그의 어법 속에는 그가 겁을 먹고 뛰어내린 자아와 그것을 개탄하는 자아로 분열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그의 한쪽 자아가 비록 배와 승객들을 함께 버린 과오를 범했지만 이런 결과와는 관계없이 또다른 자아가 있어서 서슴없이 그 결과에 책임지려고 한다.

Patna 사건 이후로 선장을 비롯한 다른 선원들은 도망친데 비해, Jim은 재판을 받는다. 그의 입장은 의무를 저버린 죄책감 보다는 개인적인 수치와 영광의 상실을 개탄하는 이기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가 해상 재판소에서 보여준 태도는 이기주의적이다.⁵²⁾ 그는 자신이 배에서 뛰어내렸을런지는 몰라도 도망치지는 않겠다고 말하는 한편 이번 일을 회피하지 않고 극복해내야 한다고 다짐하는데서 그의 진심을 읽을 수 있다. Jim이 도망치기를 거부한 것은 진정한 속죄의 자세라기 보다는 오히려 낭만적 자아상에 충실하려는 그의 허영심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재판은 Marlow와 Jim이 만나는 계기가 된다. Marlow는 Patna호 사건을 다루는 법정에서 Jim을 처음 본 순간의 소감을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I liked his appearance ; I knew his appearance ; he came from the right place ; he was one of us. He stood there for all the parentage of his kind, for men and women by no means clever or amusing, but whose very existence is based upon honest faith, and upon the instinct of courage. I don't mean military courage, or civil courage, or any special kind of courage. I mean just that inborn ability to look temptations straight in the face—a readiness unintellectual enough, goodness knows, but without pose—a power of resistance, don't you see, ungracious if you like, but priceless—an unthinking and blessed stiffness before the outward and inward terrors, before the might of nature, and the seductive corruption of men. (p. 27)

Marlow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내면에 잠재해 있는 Jim과 같은 종류의 약점을 알고 이렇게 말한다. ("each of us has a familiar devil as well... I know I

52) Moser, *Lord Jim*, p. 2.

have him—the devil, I mean.”) (p. 21) 인간은 누구나 공유의 죄(common guilt)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덤불마다 숨어 있는 뱀”(“a deadly snake in every bush”) (pp. 26~27)처럼 범죄를 저지르도록 유혹하므로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안전치 못하다. 인간 공유의 죄(common guilt)는 인간과 더불어 처음부터 존재해 왔다. Jim을 우리 중의 한 사람(one of us)으로 여기고 있는 Marlow가 끝까지 Jim 문제에 매달리는 것도 Jim을 통해 그것을 규명해 보고 싶었던 것이다. Jim의 문제는 Marlow 그 자신의 문제이다.

Was it for my own sake that I wished to find some shadow of an excuse for that young fellow, whom I had never seen before, but whose appearance alone added a touch of personal concern to the thoughts suggested by the knowledge of his weakness—made it a tinge of mystery and terror—like a hint of a destructive fate ready for us all whose youth—in its day—had resembled his youth? I fear that such was the secret motive of my prying. (p. 32)

Jim이 지닌 부정적 요소에도 불구하고 Marlow가 Jim에 대하여 긍정적 평가를 내릴 수 있는 도덕적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one of us’ 개념은 상황에 따라서 약간씩 뜻을 달리하지만 자신이 지닌 약점, 또는 그 약점으로 인한 실수를 철저히 의식하는 사람들이라는 보편성을 띤다. 도덕적으로 비겁한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을 자기만 알고 있는 전인류를 포함한다. 우리들과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Jim이 함정에 빠졌다는 것이다. Jim도 그 점을 인식하고 있다. (“I was trapped!”) (p. 63)

자신이 지닌 약점을 의식한다는 것은 새로운 자아를 형성하고 현실에 적응시키는데 대단히 중요하다. 의식은 Jim을 비극적인 인물로 만들기도 하지만⁵³⁾ 부조리 속에 놓인 자신을 인식하고 참된 존재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Jim은 섬세한 감수성을 지니고 있어서 부조리한 우주질서 속에 던져진 자신의 존재 의미를 인식하고 자신의 이상가치를 실현하고자 했다.

53) Jean-Aubry, p. 226.

Patna호에서 Jim의 행동은 법정에서 시비를 가릴 문제가 아니라 미묘하고도 중요한 인간의 본질적 문제라고 Marlow는 생각한다. 그는 Jim이 자신의 사건을 단순한 흥미거리의 객관적 사실이 아닌, 인간의 심리적 문제로 이해해 줄 협력자를 필요로 하고 있음을 간파한다.

These were issues beyond the competency of a court of inquiry : it was a subtle and momentous quarrel as to the true essence of life, and did not want a judge. He wanted an ally, a helper, an accomplice. (p. 57)

사건의 진상만을 추궁하는 재판은 인간 행위를 파악함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 심문회의 목적은 근본적 원인이 아니라 피상적인 것이다. 그들은 오직 설명을 필요로 하는 사실만을 요구할 뿐이지, 설명할 수 없는 미묘한 인간 감정에는 관심이 없다.

Conrad는 나열식의 사실에 대해 크게 불신하고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는가" ("What's the good of this?") (p. 20)라고 자문하는 Jim의 자세에서 알 수 있듯이, 사실은 오히려 사건 뒤에 숨겨진 진실을 감출 뿐이다. Conrad는 사실(facts)에 입각한 객관적 사실주의를 크게 불신하고 있다. 인간의 행위나 경험은 이해하기 어렵고 사실(fact)은 이를 은폐할 뿐이다.

Conrad distrusts facts since they deceive us : the utter intimacy of personal experience is incommunicable, and this insulation belies the smug and pretentious claims of facts to tell us about the human history of each of us.⁵⁴⁾

Jim의 행위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만의 논리에 따라 움직인 것이다. 누구든지 자신의 의식세계, 자신의 독특한 연상체계에 따라 움직인다. 의사를 서로 통하기 위한 개인의 몸짓은 근사치일 따름이고 또한 이해된다고 기대할 수도 없다. 각 개인은 자신의 개인적 경험에 비추어 판단할 것이기 때문이다. 고정관념에 대한 Conrad의 회의적 태도는 객관적 진리를 부정하고 오직 자신의 판단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실존주의 입장을 따르는 것으로 여겨진다.

54) Murray Krieger, *The Tragic Vision: Variations on a Theme in Literary Interpretation* (New York : Rinehart and Winston, 1960), p. 172.

"My judgement is *my* judgement, to which hardly anyone else has a right", is what the philosopher of the future will say. One must get rid of the bad taste of wishing to agree with many others. "Good" is no longer good in the mouth of my neighbor. And how could there be a "common good!" The expression contradicts itself: what can be common cannot have much value.⁵⁵⁾

심문회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Jim의 문제가 사법적인 판결의 차원을 떠나 인간 행위에는 복잡하고 미묘한 어떤 점이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는 인간의 내면의 동기를 강조한 것이다. Marlow는 Jim의 문제를 여러 각도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He appealed to all sides at once—to the side turned perpetually to the light of day, and to that side of us which, like the other hemisphere of the moon, exists stealthily in perpetual darkness, with only a fearful ashy light falling at times on the edge. (p. 57)

Jim의 문제가 사실적 판단을 넘어 인간 본질의 문제라는 사실은 법정을 주관한 Brierly의 자살에서 암시된다. Brierly는 Marlow의 도덕적 판단의 관점이 구체화된 대표적 인물이다.⁵⁶⁾

여기에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Brierly와 Marlow의 대화에서 볼 수 있는 Brierly의 태도이다. 그는 Patna호의 다른 승무원들은 모두 도망쳐 버렸는데도 Jim만이 스스로 법정에 나와 온갖 수모를 견뎌내며 심문을 당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왜 모든 것을 뒤집어 써야 하는가" ("Why eat all that dirt?") (p. 41)라고 분개한다. Marlow가 심문에 응하는 Jim의 태도를 일종의 용기라고 말하자, "그러한 용기는 집어치워" ("Courage be hanged!") (p. 41)라고 분개한다. Brierly가 Jim에 대해 분노를 느끼는 것은 그가 800여명이나 되는 승객들을 내버려둔 채 도망쳐 버린 비인간적인 행위를 해서라기보다는 백인 선원으로서의 임무에 충실치 못함으로 인하여 자신에 대한 기대감과 신뢰감을 상실했다는 점이다.

55) Nietzsche, p. 48.

56) Berthoud, p. 66.

Brierly went on : This is a disgrace, We've got all kinds amongst us—some anointed scoundrels in the lot ; but, hang it, we must preserve professional decency or we become no better than so many tinkers going about loose. We are trusted. Do you understand?—trusted ! Frankly, I don't care a snap for all the pilgrims that ever came out of Asia, but a decent man would not have behaved like this to a full cargo of old rags in bales. We aren't an organised body of men, and the only thing that holds us together is just the name for that kind of decency. Such an affair destroys one's confidence. (p. 42)

Brierly의 이와 같은 편협한 태도는 인생에는 단순히 공동체에 대한 의무 이상의 어떤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데서 온 것이다. 그는 공동체 사회의 결속을 강조하고 있지만 원주민 800명을 버린 것보다 선원으로서의 “직업윤리” (“professional decency”) (p. 68)를 저버린 Jim을 비난한 것이다. 그는 죄라는 문제를 무시하고 불명예라는 측면에서 Jim을 비난한다.

그러나 Jim의 사건을 심문하는 과정에서 Brierly는 이제까지 깨닫지 못했던 인간 심리의 어두운 면을 보게 된다. 그에게서 인간 공유의 죄(common guilt)에 대한 인식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⁵⁷⁾ 그는 Jim에게서 예상치 못한 잠재적 자아를 인식하였고 처음으로 자기를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다.⁵⁸⁾ Marlow는 Brierly가 Patna호 사건의 재판이 끝난 후 곧 자살하게 된 동기를 분석하면서 그가 Jim을 심문하는 동안 한편으로는 자신에 대한 심문을 하고 있었는지 모른다고 말하고 있다.

“No wonder Jim's case bored him, and while I thought with something akin to fear of the immensity of his contempt for the young man under examination, he was probably holding silent inquiry into his own case. The verdict must have been of unmitigated guilt, and he took the secret of the evidence with him in that leap into the sea. If I understand anything of men, the matter was no doubt of the gravest import, one of those trifles that awaken ideas—start into life some thought with which a man unused to such a companionship finds it impossible to live. (p. 36)

57) Krieger, p. 173.

58) Guerard, p. 149.

그는 Jim에게서 은밀한 공범의식을 느끼고서 심한 자기 동일시를 일으킨 것이다. Ghent는 Brierly의 자살은 자기 동일시에서 온 것이며, 그 자신도 Jim의 경우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뛰어내렸다는 이색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Brierly, the unimpeachable professional seaman, in some astounding way identifies himself with the accused man, Jim, and commits suicide. Is this another version of Jim's "jump"? If so, in avoiding by suicide the possibility of being Jim, Brierly succeeds merely in being what he was trying to avoid; this is Jim's "case" all over again.⁵⁹

재판 과정에서 Marlow의 등장과 Brierly 자살은 두 가지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첫째, 객관적 진리에 대한 Conrad의 부정적 견해가 드러나고 있다. 심문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드러난 사실로서 물질세계의 사실적 측면이지만 인간의 행위는 의식을 수반하는 것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어려운 일이다. 무신론적 측면에서 인간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자신 뿐이다.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행동하고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Jim이나 심리적 관찰자인 Marlow가 법정에서 보인 태도는 회회적이다.

둘째, Brierly의 자살에서 보여지듯 인간은 보편적인 악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Brierly는 Jim에게서 인간 공유의 죄(common guilt)를 느끼고 자신을 처음으로 성찰하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외부세계를 관찰하는 눈이 비로서 자기 내면을 주목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다. 그것은 자아에 대한 인식이다. Brierly의 자살은 인간의 의도적 행위와 그 결과로서의 판단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부조리를 보여준 것이다. '자살은 부조리 세계를 인정한 것'이라는 Camus의 주장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 하겠다.

Suicide, like the leap, is acceptance at its extreme. Everything is over and man returns to his essential history. His future, his unique and dreadful future—he sees and rushes toward it. In its way, suicide settles the absurd.⁶⁰

59) Ghent, p. 241.

60) Camus, p. 40.

Jim은 Patna호에서 뛰어내림으로써 자신의 의도나 논리와는 관계없이 결과적으로 인류사회의 믿음을 배반하였다. Jim은 선원으로서 그에게 부과된 행동규범을 어기고 신뢰를 잃은 것이다. 신뢰라는 것은 행위의 고정된 규범이라 할 수 있다. 세상은 그 규범이 순종되어질 것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부인한 자에게 처벌을 내린다. 그에게 내려진 자격증 박탈은 그의 자아와 다치기 쉬운 이상주의에 대한 제재이다.⁶¹⁾

그럼에도 불구하고 Jim은 배반 행위에 대해 조금도 뉘우침이 없다. 그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죄'의 문제로 보지 않고 '명예'의 훼손으로 여긴다. 이러한 Jim의 태도는 참된 자아를 실현하는데 큰 장애가 되며 그 결과로서 소외의 과정은 필연적이다. Guerard는 *Lord Jim*을 죄 (guilt)와 명예의 상실감 (a sense of disgrace)을 구별하지 못하고 뉘우침 없이 살아가는 한 인간에 대한 작품이라고 평하고 있다.⁶²⁾



61) "In a sence a proper judgement has been passed on Jim's romantic ego and his vulnerable idealism : certificate conceled." Guerard, p. 154.

62) "*Lord Jim* explores the distinctions between guilt and sense of disgrace yet remains ambivalent toward the character who—accepting what he has done as done—lives without remorse." Ibid., p. 155.

IV. 소외와 시련의 극복

부조리한 상황에 던져진 인간은 외부로부터의 고립이 불가피하다. 이것은 어느 정도까지 스스로 부과한 것이다. 인간은 내버려진 존재로서 자아라는 폐쇄된 세계에서 꿈을 키운다. 이들의 대부분은 고칠 수 없는 이기주의자이기 때문에 주위의 세계로부터 고립될 수 밖에 없다. 인간은 내부의 '암흑의 힘'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고립의 핵심은 바로 그 자신이기 때문이다.

법정에서의 작격증 취소라는 판결은 Jim에게는 명예의 박탈이다. Jim은 그러한 굴욕에 대하여 어떻게 자신과 화해하느냐 하는 정신적 문제가 남는다. 이것은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에서 오는 소외의 문제다. 우리는 주변으로부터 고립된 Jim이 그의 부조리 상황에 대응하는 자세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살펴볼 수가 있다.

소외된 Jim이 보여주는 첫번째 반응은 자기변명이다. 처음으로 그는 놀라게 뒤엉켜 있는 자아의 문제에 직면한다. "Jim은 변명하고 싶지는 않지만 설명하고 싶다" ("I don't want to excuse myself ; but I would like to explain.") (p. 50)라고 말한다. Jim이 설명하겠다는 것은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겠다는 결의와 동시에 몇 가닥의 자존심과 자기 정당성을 유지하겠다는 결의가 혼합되어 있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는 자신을 너무나 믿었기 때문에 그에 비례하여 실망도 말할 수 없이 컸다. 그러므로 그는 자기의 행동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다. 그는 한 줄기의 자존심이 뚫고 나갈 수 있는 구멍을 찾으려고 애쓰면서 자신을 합리화 하는데 정신이 없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Marlow에게 자기 입장을 설명한다. ("It was their doing as plainly as if they had reached up with a boat-hook and pulled me over.") (p. 76) Marlow는 아무것도 반박하지 못한다. 그는 Jim이 자기 자신의 말을 믿고 있는지도 알지 못한다. 자각이라는 무서운 그림자로부터 도피하려는 자신의 교묘한 꾀를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자기변명의 구실을 타인이나 환경에서 찾는 것은 일종의 자기기만이다. Jim의

자기기만은 자신 내부의 또다른 자아(the other-self), 즉 본능적 자아를 인정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Jim repudiates the other-self that has been revealed to him : at no time does he consciously acknowledge it *was* himself who jumped from the *Patna*—it was only his body that had jumped : and his career thenceforth is an attempt to prove before men that the gross fact of the jump belied his identity.⁶³⁾

Jim의 본능적인 자아의 부정은 마치 무의식적 정신 상태를 부정하는 Sartre의 의식론과 상통하지만 역설적으로 Conrad의 입장은 무의식에 중점을 둔 Freud의 견해에 가깝다. 자기 자신은 의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Sartre의 주장은 무의식적 정신 상태의 가정과 충돌한다. Freud의 정신분석(psycho-analysis)은 인간의 정신 생활에 원인적 역할을 하는 무의식적 정신 상태에 기초를 두고 있다. Freud는 이러한 원인들이 거의 기계적으로 흐르는 에너지처럼 작용한다고 생각했다. 정신분석 작업이란 이 숨어있는 원인들을 밝혀내는 일로 간주된다. Jim이 Patna호에서 뛰어내린 행위가 의식적이라기 보다는 자기 보존본능에 입각한 무의식적이라는데 동의한다면 Conrad의 입장은 Freud의 심리적 결정론을 따른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Jim은 Patna호에서 뛰어내린 직후 사라지는 Patna호 불빛을 보면서 고립된 자아를 절감한다.

'After the ship's lights had gone, anything might have happened in that boat—anything in the world—and the world no wiser. I felt this, and I was pleased. It was just dark enough, too. We were like men walled up quick in a roomy grave. No concern with anything on earth. Nobody to pass and opinion. Nothing mattered. ... No fear, no law, no sounds, no eyes—not even our own, till-till sunrise at least.' (p. 70)

Patna의 불빛은 단순히 등불 자체의 의미를 넘어 Jim의 윤리적 행위(ethical conduct)를 푸는 실마리가 된다.⁶⁴⁾ 그 빛은 Jim의 영혼을 지켜온 윤리적 양심이다.

63) Ghent, p. 234.

64) Tanner, *Chicago Review* XVI, p. 136.

내면의 도덕적 빛이 소멸되면서 Jim은 고립감에 휩싸인 채 실존적 고뇌에 빠진다. 800명의 순례자(pilgrims)를 버린 그의 고통과 고뇌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감의 표현이요, 그의 윤리적 양심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Jim 내부에 존재해 있는 또하나의 자아임을 느낄 수 있다. Sartre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감에서 회피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실존인의 고뇌라고 말하고 있다.

The existentialist frankly states that man is in anguish. His meaning is as follows—When a man commits himself to anything, fully realizing that he is not only choosing what he will be, but is thereby at the same time a legislator deciding for the whole of mankind—in such a moment a man cannot escape from the sense of complete and profound responsibility. There are many, indeed, who show no such anxiety. But we affirm that they are merely disguising their anguish or are in flight from it.⁶⁵

Jim의 고뇌는 윤리적 양심이면서 책임감 있게 행동하도록 요구한다. Jim은 심한 고뇌 속에서도 실존인으로서의 참된 자아를 추구하고 있다. 고뇌(anguish)는 습관에서 떠나 실존조건을 인식하기 시작할 때의 마음 상태라고 하는 실존주의자들의 고뇌(anguish) 개념에서 Jim의 실존에 대한 인식을 추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

As Sartre's to Kierkegaard indicates, his use of the term anguish derives from the "angst" or "dread" about which Kierkegaard, and Martin Heidegger after him, have written. They use the word to describe the state of mind of a person who has begun to depart from habit and to understand his existential condition.⁶⁶

Jim은 사라져간 순례자들에 대한 고뇌의 고통을 느끼고 나서 심한 고립감 속에서 무(nothingness)를 경험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공포(dread)가 무(nothingness)를

65) Ellmann, pp. 835~36.

66) Ibid., p. 805.

67) Martin Heidegger, "What Is Metaphysics?" *Existence and Being*, trans. R. F. C. Hull and Alan Crick (London: Vision Press, 1959), p. 366~67.

이끈다는 것이다.⁶⁸⁾ Heidegger에 따르면 공포는 부정적 무한성이지만 개인의 보편적 존재를 잃음으로써 긍정적 무(nothingness)로 나아간다고 한다.⁶⁹⁾ 부정적 무한성(a negative infinity)이란 인간의 안전과 존재를 지속적으로 위협하는 부조리로 여겨진다. 인간은 이러한 부조리와 직면할 때 허망과 무를 경험하게 된다. Conrad는 인간이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결정적 순간에 주목하면서, 그러한 순간은 내부의 의식을 일깨운다고 말하고 있다.

Conrad is interested in those crucial moments when we are utterly "alone with ourselves", when to all intents and purposes nothing matters, when all the guidance must come from within, when all the lights have gone out.⁷⁰⁾

즉 Jim은 Patna호 사건으로 고뇌(anguish or dread)의 고통을 겪으면서 절망하지만 유한성의 세계를 파괴시킴으로써 무한성의 신념(infinite faith)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다. 무한성의 신념은 Stein에 의하면 "순수미 또는 절대적 진리"("Beauty itself or absolute Truth") (p. 132)라고 표현되고 있다. 결국 Camus의 말처럼 인간은 부조리를 통해 자신의 존재가치를 발견하고 있는 셈이다.⁷¹⁾ Jim은 무의 경험을 통해 자아에 대하여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되었다.

Patna호 불빛이 사라진 후 Jim이 느낀 고뇌는 진실성(authenticity)의 획득이다. Sartre는 진실성의 획득이 바로 실존의 완성이요, 모든 도덕적 판단의 기준이라고 말한다.

Sartre is not so much concerned with the specific qualities of anguish as with its other face—for him, the attainment of "authenticity." This is the consummation of existence and the basis for all moral judgment. Self-deception tries to bar the way, impelling a man to adopt the mask of some external role or to plead that he is driven

68) "Heidegger's dread is the presence of a negative infinity, a loss of both personal and universal being, an entry into positive Nothingness." Ellmann, pp. 805~806.

69) Tanner, *Chicago Review* XI, p. 137.

70) Ellmann, p. 806.

71) Ibid.

by some overwhelming passion, or by fate or by some other deterministic force. Such special pleading is not only erroneous but also morally culpable. Authenticity demands the wholehearted acceptance of freedom as the *sine qua non* of a man's own existence and that of mankind. Everything else if permitted, but there is one absolute moral law : that every action be taken in the name of freedom.⁷²⁾

Conrad가 주장하는 진실성 (authenticity) 개념은 Conrad가 추구한 이상가치의 요체인 성실성 (fidelity) 개념과 그 지향하는 가치면에서 같은 맥락을 이루는 것으로 여겨진다. Jim은 비록 자신의 행위가 타인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자기 기만적 변명을 늘어 놓았지만 내부에서는 의식을 통해 진실성을 얻어가는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이다. 그는 부조리에 대한 인식을 통해 무한한 가능성을 토대로 하는 자유 (freedom)을 받아 들이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Jim의 태도 변화는 바로 내부의 눈인 의식의 힘으로 자아에 대해 눈을 떴음을 의미한다.

의식과 관련하여 중요한 관점으로 French lieutenant를 들 수 있다. 그는 작품 전체를 통해 세 가지 중요시점 중의 하나인데 Jim의 문제가 원인이나 의도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결과로서의 행위만이 고찰되는 경우이다. 행위의 결과적 측면에서만 살핀다. Jim에 대한 그의 결론은 간단명료하다. ("And so that poor young man run away with the others.") (p. 88)

그의 견해는 인간을 본질적으로 겁장이라는 사실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것은 인간의 선천적 자기보존 본능을 가리키는 것으로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반드시 두려움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lieutenant의 견해는 사회적 규범에 역점을 둔 것으로 반복된 용기의 누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기주의에 입각한 자기 보존본능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규범이 있어야 하고 그것은 절대적으로 복종되어야 하며 그 복종이 바로 용기라는 것이다. 용기란 행위자가 무엇을 느끼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행하는가의 문제로서 행위 과정에서 두려움을 느꼈다고 해서 수치심을 가질

72) "the French Lieutenant represents the approved ethos of the profession (and not only of the profession of the sea, but of the profession of being human, as the author evaluates his material ;for, in that evaluation, being human, as humans ought to be, is a profession, with an austere Spartan-like discipline." Ghent, p. 242.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lieutenant의 견해는 행위의 반복된 용기를 주장하지만 거기엔 자유의 핵심인 의식이 결여되어 있다. 그는 Patna 선상에서 30시간이나 머물러 있으면서도 배 이름조차도 잊어 버리고 있다.

I remained on board that—that—my memory is going (*s'en va*). *Ah! Patt-na. C'est bien sa. 9 Patt-na. Meri*. It is droll how one forgets. I stayed on that ship thirty hours... (p. 86)

그도 역시 두려움을 인정하고 있지만, “사람은 두려움으로 인하여 죽지는 않는다.” (“one does not die of being afraid”) (p. 89)는 말에서 보듯이 위기 속에서 해야 할 일은 효과적으로 행동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Jim과는 달리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의식이 결핍된 그의 행위는 Patna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마지막까지 배를 지켰던 두 키잡이의 행위와 같다. Jim은 Patna 사건 증인으로 나온 키잡이를 보면서 의식이 없다고 비난했었다. 두 키잡이처럼 lieutenant는 직업적 윤리에 따라 습관적으로 행동에 옮긴 것이다. 스스로가 무감각한 자신의 태도를 인정했듯이 그는 사실주의자요, 인간의 복잡함을 단지 “어린애 장난” (“child’s play”) (p. 89)이라고 생각한다. 그에게서 인간다움은 엄격한 스파르타식 훈련 (*austere Spartan-like discipline*)으로써 단련되는 것이다.

lieutenant는 선원의 명예를 무엇보다도 중요시하는 사람으로서 규율에 충실한 공동체의 일원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도 역시 Brierly와 마찬가지로 인생에는 명예 이상의 어떤 무엇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하겠다. 그의 태도는 의식이 수반되지 않은 지각없는 영웅주의 (*unreflexive heroism*)로서 Jim의 낭만적 영웅주의에 좀 더 명확한 통찰력을 제공해주고 있다.⁷³⁾

Jim은 Patna로 사건 이후 동쪽으로 계속해서 도피한다. 유능한 ‘water-clock’으로서 능력을 발휘하지만 그의 불명예스러운 과거가 알려지면 지체없이 직장을 버리고

73) Guerard, p. 164.

서구문화의 전초지에서 Bombay, Calcutta, Rangoon, Penang, Botavia로 점점 멀어져 간다.

Jim의 도피는 단순한 도망이 아니라 소외에서 벗어나 참된 자아의 실체를 찾고자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 싸우고 있는 것이다. 그의 도피는 어려운 궁지에서 벗어나려함이 아니라 극복의 대상임을 스스로 밝히고 있다.

'But I've got to get over this thing, and I mustn't shirk any of it or... I won't shirk any of it.'... 'Perhaps so', he said at last; 'I am not good enough; I can't afford it. I am bound to fight this thing down—I am fighting it *now*'. (p. 94)

그의 시련은 능력 이상의 것을 지향하려는 환상적 영웅주의에 대한 형벌이요, 그의 모험적 환상에 대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인 것이다. 그럼에도 시련 속에서 Jim이 지향하는 자기 초월적 자세에는 참된 자아를 추구하려는 실존적 지향의지가 담겨져 있다.

Jim의 시련에 대한 극복의지는 수많은 투구벌레(beetles)⁷⁴⁾ 사이에서 이겨내려는 데 의의가 있다. Conrad의 비관론적 세계 속에 놓인 Jim은 현실적으로 악의 요소들로 둘러 싸여 있다. 비록 그의 낭만적인 꿈은 불가능한 세계에 있지만 투구벌레로 가득찬 현실을 피할 수는 없다.

Jim은 시련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또다른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혼자 힘으로 맞서겠다는 Jim의 결연한 의지 속에 실존적 의지를 읽을 수 있다. 그럼에도 Marlow는 Jim의 의지에 숨겨진 의도에 회의를 던진다. ("A clean slate, did he say? As if the initial word of each our destiny were not graven in imperishable characters upon the face of a rock!") (p. 113) 그는 깨끗한 경력(clean slate)를 원했다. 과거를 청산하고 싶었던 것이다. 이것은 그가 죄보다는 불명예에 더 집착해 있음을 보여준다. Jim도 자신의 불명예를 회복하겠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다. ("Someday one's bound to come upon some sort of chance

74) "There are hordes of such insets in *Lord Jim*. In fact one could describe the logic of Jim's continual flight as an attempt to escape from the beetles who are continually crossing his path." Tanner, *Chicago Review* XI, p. 127.

to get it all back again. Must!") (p. 109)

Jim이 추구하는 자아는 일종의 이상화된 이기주의이다. 그 결과는 인간의 결속을 크게 해치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개인주의에 입각한 Jim의 자세는 도덕적 고립을 더욱 심화시키며 스스로의 파멸을 면하기 어렵게 한다.

Jim의 고립에서 시사하는 점은 고립이 "존재의 가혹하고 절대적인 조건" ("a hard and absolute condition of existence") (p. 109)이라는 점이다. Jim의 이상가치는 현실이라는 외부적 부조리에 의해서 환경과 심한 갈등을 겪게 되고 또한 그 초월성과 더불어 Jim의 낭만적 이기주의로 인하여 Jim의 심한 고립감을 절감한다. 그러나 Jim은 의식을 통하여 무(nothingness)에서 발견되는 긍정적 가능성의 세계로 전환할 수 있었다. Jim이 무(nothingness)에서 인식한 것은 참된 자아의 실체이다. 역설적이지만 사라져 가는 Patna호 불빛을 보면서 이제까지 의식하지 못했던 고립된 자아, 즉 그 자신의 실체를 본 것이다. 부조리한 상황에서 Jim의 고립은 자아발견이라는 존재가치를 얻은 것이다. Jim은 재판 후의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기다리며 시련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자아 추구라는 실존가치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보여진다. Jim의 문제가 Patna호 사건으로 끝나지 않은 것은 그의 자아 추구가 개인주의에 입각한 이기주의에 바탕을 두었기 때문이다. Jim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속죄보다는 개인의 명예회복을 중요시함으로써 Jim은 자아실현이라는 실존문제와 도덕적 윤리문제를 동시에 수반하는 복잡한 상황으로 치달게 된다. Jim이 Patna호에서부터 뛰어내린 것은 자기 조국 Poland를 버리고 영국으로 귀화했던 Conrad의 상황과 관련지을 수 있다.⁷⁵⁾ Jim이 겪는 고립감과 복잡한 심리 상태는 영국 귀화로 겪게 된 작가의 도덕적 갈등을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75) "The Novel is eminently symbolical. The circumstances leading up to Jim's 'jump' are modelled on those leading to Conrad's naturalization as a British subject." Morf, p. 162.

V. 환상적 자아추구의 비극성

Jim의 문제는 외부세계에 대한 것이라기 보다는 인간 내부의 어떤 것에 근원을 두고 있다. 도피 과정에서 Jim이 보여준 태도는 물질적, 정신적 안락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이 지닌 근원적 한계상황에 대한 회의와 개선의 가능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 고립이라는 부정적 상황에서 자아의 내면을 인식하면서 Jim은 한 차원 넘어 참된 인간 본질의 문제에 접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Marlow가 Jim에게 제공한 도움은 육체와 정신을 유지시켜 주는 물질적인 것이었다. Marlow는 Jim이 추구하고 얻고자 하는 것이 규정하기 어려운 인간 본질의 어떤 것임을 깨닫고서 그의 옛 친구인 Stein과 상의하기로 결심한다.

I [*Marlow*] felt at once convinced that he was right. It would make no difference ; it was not relief he wanted ; I seemed to perceive dimly that what he wanted, what he [*Jim*] was, as it were, waiting for, was something not easy to define—something in the nature of an opportunity. I had given him many opportunities, but they had been merely opportunities to earn his bread. (p. 122)

Stein은 풍부한 인생 경험과 지식을 겸비하고 있으며 사실의 세계와 이상의 세계에 두루 성공한 인물이다.⁷⁶⁾ 그는 나비와 투구벌레의 박식한 채집가이며, 날카로운 통찰력을 소유하고 있다. 곤충 채집가로서 나비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그가 자신의 이상적 열망을 달성했음을 상징한다.⁷⁷⁾

그는 Jim이 처한 상황을 나비에 비유함으로써 분석하고 있다. 나비는 파괴를 거부하고 죽음에 의해서도 손상되지 않은 놀라움을 지닌 채 Stein을 사로잡는다. 자연의 걸작품으로서 나비는 그 정확성, 조화, 힘의 균형을 이루면서 자연과 완벽하게 하나의 세계를 이룬다.

76) Tony Tanner, *Conrad: Lord Jim* (Southampton : The Camelot Press, 1975), pp. 55~56.

77) Donald C. Yelton, *Nimesis and Metaphor: An Inquiry into the Genesis and Scope of Conrad's Symbolic Imagery*, Cited by Thomas C. Moser, *Lord Jim* (New York : W. W. Norton & Co., 1968), p. 474.

“‘Marvellous!’ he repeated, looking up at me. ‘Look! the beauty—but that is nothing—look at the accuracy, the harmony. And so fragile! And so strong! And so exact! This is Nature—the balance of colossal forces. Every star is so—and every blade of grass stands so—and the mighty Kosmos is perfect equilibrium produces—this. This wonder: this masterpiece of Nature—the great artist.’ (p. 126)

그에 비해 인간은 놀라운 존재이기는 하지만 완전한 존재가 못된다. 인간은 그를 필요로 하지 않는 곳에 와서 환경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고 Stein은 설명하고 있다.

“‘Man is amazing, but he is not a masterpiece’, he said, keeping his eyes fixed on the glass case. ‘Perhaps the artist was a little mad. Eh? What do you think? Sometimes it seems to me that man is come where he is not wanted, where is no place for him; for if not, why should he want all the place? Why should he run about here and making a great noise about himself, talking about the stars, disturbing the blades of grass?...’ (p. 126)

하찮고 더러운 현실 혹은 자신의 실체에 소박하게 적응할 줄 아는 멋진 나비와는 달리 인간은 진흙더미 위에 결코 얌전히 머무르지 않고 여러 모습의 이상형이 되고자 한다는 것이다. 즉 인간은 주어진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을 초월하고자 하는 꿈을 지니고 있다.

인간의 이러한 꿈은 나비의 완벽함과 불멸의 가치에 대한 열망이라고도 볼 수 있다. Marlow가 Jim을 생각하고 있는 동안 Stein은 나비를 살피고 있다. Stein이 몰두해 있는 나비의 모습은 바로 Jim의 기질이요, Jim이 추구하는 꿈이다.⁷⁸⁾

He looked at a butterfly, as though on he bronze sheen of these frail wings, in the white tracings, in the gorgeous markings, he could see other things, an image of something as perishable and defying destruction as these delicate and lifeless tissues displaying a splendour unmarred by death. (p. 126)

78) Tanner, *Chicago Review* XVI. p. 124.

나비의 날개에서 Jim의 연약함과 섬세함을 연상할 수 있다. 멧진 무늬 (marking)에서 파괴를 거부하는 불멸의 Jim의 꿈을 볼 수 있고, 또한 하얀 줄무늬 (white tracing)에서 티없이 깨끗한 차림의 Jim을 본다. 더러움을 혐오하는 Jim이 Patusan에 처음 나타났을 때도 그는 흙 투성이로 뒤집어 쓴 원주민과는 전혀 다른 초자연적인 모습 (supernatural brightness)을 보여준다.

In the midst of these dark-faced men, his stalwart figure in white apparel, the gleaming clusters of his fair hair, seemed to catch all the sunshine that trickled through the cracks in the closed shutters of that dim hall, with its walls of mats and a roof of thatch. He appeared like a creature not only of another kind but of another essence. (p. 140)

나비가 주는 불멸의 이미지는 먼지 투성이의 원주민이나 갖가지 유형의 투구벌레와 같은 철저한 현실주의자와는 달리 Jim이 완벽한 이상가치를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Jim의 꿈은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Jim의 꿈은 나비의 이미지처럼 놀라운 절대적 미를 추구하지만 Jim의 내면에는 괴물 (horrible miniature monsters)의 속성이 도사리고 있다. Marlow는 투구벌레의 어두운 속성이 선천적인 Jim의 기질임을 암시한다. ("the infernal alloy in his [Jim's] metal") (p. 28) Jim이 지닌 꿈의 한계는 Jim의 내면세계가 갖는 어두운 속성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 Jim이 가지고 있는 꿈의 실체는 무엇이길래 Jim을 현실에 안주케 하지 못하고 곤궁에 처하게 하는가? Stein은 Jim의 상황을 "그 사람 낭만적이구만" ("He is romantic.") (p. 132)이라고 간단히 진단한다. 그는 낭만적인 Jim의 꿈에 대해 긍정과 부정의 평가를 동시에 내리고 복잡한 비유로서 꿈의 양면성을 암시해 주고 있다.

A man that is born falls into a dream like a man who falls into the sea. If he tries to climb out into the air as inexperienced people endeavour to do, he drowns—*nic ht war?* ... No! I tell you! The way is to the destructive element submit yourself.

and with the exertions of your hands and feet in the water make the deep, deep sea keep you up. (p. 130)

Guerard는 이러한 비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A man is born ready to create an idealized conception of self, an ego-ideal. If he tries to escape or transcend this conception of self, he collapses. He should accept this ideal and try through action to make it "viable".*⁷⁹⁾

Guerard의 설명에서 알 수 있듯이 꿈은 두 개의 상반된 양면가치를 지니고 있는데 그 하나는 이상화된 자아("the ideal itself or ego-ideal")⁸⁰⁾와 동일한 것으로 여겨진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이상화된 자아를 추구한다. 이상화된 자아는 Sartre가 말한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Existence precedes essence")⁸¹⁾에서 보여지듯 스스로 자신의 본질을 창조하고자 하는 인간의 존재조건이다.

What do we mean by saying that existence precedes essence? We mean that man first of all exists, encounters himself, surges up in the world—and defines himself afterwards. If man as the existentialist sees him is not definable, it is because to begin with he is nothing. He will not be anything until later, and then he will be what he makes of himself. Thus there is no human nature because there is no God to have a conception of it. Man simply is. Not that he is simply what he conceives himself to be, but he is what he wills, and as he conceives himself after already existing—as he wills so be after that leap towards existence. Man is nothing else but that which he makes of himself. That is the first principle of existentialism.⁸²⁾

Stein은 고통(anguish)와 함께 Jim의 존재를 가능케 하는 것은 그의 꿈이라고 생각한다.("What is it that by inward pain [*anguish*] makes him know himself? What is it that for you and me make him exist?") (p. 132) 그러므로 인간의 꿈은 참된 자아의 실체를 실현하려는 실존적 가치로 여겨진다.

79) Guerard, p. 161.

80) Ibid.

81) Eillmann, p. 828.

82) Ibid.

꿈이 지닌 양면가치의 또 하나는 파괴적 요소 (destructive element)이다. 꿈은 현실을 떠난 이상화된 개념이므로 갈등과 부조리를 유발하는 부정적 속성을 함께 지닌다는 것이다. 현실을 떠난 꿈은 기만적인 것이며 인간을 부정적으로 규정한다는 Sartre의 주장을 Stein의 논리와 비교해 보면 상당한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

On the other hand, it puts everyone in a position to understand that reality alone is reliable ; that dreams, expectations and hopes serve to define a man only as deceptive dreams, abortive hopes, expectations unfulfilled ; that is to say, they define him negatively, not positively.⁸³⁾

Stein이 말한 파괴적 요소는 꿈과 동일한 개념이다. 그 꿈 속에는 현실이 숨어 있다. 꿈은 현실에서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현실성을 지니지 않은 꿈은 환상에 머무를 뿐이다. Stein은 꿈이 현실과 접촉하기 위해서는 파괴적인 바닷물 속에 잠입해야 한다는 다소 애매모호한 논리를 펴고 있다. 바닷물 속은 정신분석적인 비유에 의하면 인간의 무의식 세계다. 그 곳은 꿈의 실재세계로서 그 속에 “불멸의 현실” (“imperishable reality”) (p. 132)이 숨어 있다. 그 속의 현실 (reality)은 “절대적 진리” (absolute Truth)이며, 선악을 초월한 “순수미” (Beauty itself) (p. 132)와 같다.



We had approached nearer to absolute Truth, which, like Beauty itself, floats elusive, obscure, half submerged, in the silent, still waters of mystery. (p. 132)

따라서 꿈이 ‘불멸의 현실’ 또는 ‘절대적 진리’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꿈의 세계로의 잠입이 필요하다. 파괴적 요소를 지닌 이러한 세계로의 잠입은 위험한 일이지만 Jim과 같은 낭단주의자에는 현실이요, Jim의 참된 실존은 그 곳에 있다고 Krieger는 말하고 있다.

Yet the sea in Stein's metaphor appears to represent the dream rather than reality, so that dream rather than reality would appear to be the destructive element. How-

83) Ibid., p. 854.

ever, to the romantic—as Stein conceives him and as Jim realizes him even more completely than Stein did—the dream is the reality, the existence into which he has been capriciously hurled.⁸⁴

Stein은 “not how to get cured, but how to live” (p. 129) 라고 말하는 Marlow에게 “how to be” (p. 129) 라고 함으로써 Jim의 문제가 실존적 문제에 있다고 단정을 내린다. 그래서 Jim에 대해 다음과 같은 처방을 내린다.

‘In the destructive element immerse...’ He spoke in a subdued tone, without looking at me, one hand on each side of his face. ‘That was the way. To follow the dream, and again to follow the dream—and so—*ewig—usque ad finem*...’ (p. 131)

물에 빠진 사람이 물 밖으로 성급히 나오려 하지 말고 물에 잠긴 채 부지런히 팔다리를 놀려야 살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참된 자아의 실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파괴적 요소 속에 잠겨 끝까지 자신의 꿈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Guerard는 이러한 Stein의 충고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Stein’s ambiguous advice : to submit yourself to the “destructive element” of the ego-ideal ; to attempt through action to realize (or live with?) that illusion of self ; to “follow the dream.”⁸⁵

그렇지만 존재문제에 대한 Stein의 처방에는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 Conrad는 그림자 (shadow)의 이미지를 통해 그의 논리와 처방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With a hasty swish-swish of his slippers he loomed up in the ring of faint light, and suddenly appeared in the bright circle of the lamp. His extended hand aimed at my breast like a pistol ; his deep-set eyes seemed to pierce through me, but his twitching lips uttered no word, and the austere exaltation of a certitude seen in the

84) Krieger, p. 165.

85) Guerard, p. 159.

dusk vanished from his face... The light had destroyed the assurance which had inspired him in the distant shadows. (p. 130~31)

어둠의 그림자는 Stein에게 자신감을 불어 넣어 주지만 램프의 불빛을 받자 그의 얼굴에서 확신감이 사라진다. Stein에게 확신을 주는 어둠은 Stein이 지닌 무의식의 힘이며, 그의 지혜와 통찰의 원천이다. 황혼과 그림자와 같은 기만적인 희미한 불빛은 Stein의 처방에 대한 방식이 Jim을 자신의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보다는 그 자신이 Jim의 수준으로 내려온 것이다. 그림자(shadow)의 이미지에서 보여주는 회의적 태도는 Stein 방식이 Conrad의 그것이 아님을 보여준다고 Guerard는 주장하고 있다.

At a first reading we naturally identify Stein's judgment and Conrad's. But the imagery which occurs to Marlow, immediately after Stein gives his advice, seems to say something very different. It associates Stein and his "conviction" with the half-lights of deception and menacing illusion; it brings Stein down to Jim's level rather than raises Jim to his. We cannot be sure what Conrad thought about Stein. Neither, possibly, could Conrad himself.⁸⁶⁾

Stein에 대한 작가의 회의적 자세에도 불구하고 그의 논리는 꿈의 실체에 보다 명확한 실마리를 제공해 주고 있다. 그는 Jim의 문제를 실존문제로 규정지음으로써 '존재가 본질에 선행한다'는 실존주의 기본원리에 동조하고 있다. 신이 없는 무질서한 세계에서 자신의 존재는 자유의지에 따라 자신의 본질을 결정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꿈이다. 꿈은 인생에 있어서 필연적 존재조건으로 여겨진다. 자신의 본질을 결정하기 위한 꿈은 자아의 이상화된 개념이다. 결국 Stein의 논리에서 꿈의 실체는 이상화된 자아의 추구임을 추출할 수 있다.

Stein은 Jim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그의 회사 전진기지가 있는 Patusan이라고 하는 오지로 그를 보낸다. Jim으로서는 잃어버린 명예를 되찾을 수 있는 기회이면서 참된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마지막 가능성이기도 하다. Baines

86) Ibid., p. 160.

는 Patusan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Jim had already hinted that he needed the opportunity to redeem himself in his own eyes and in the eyes of the world, and on his way to Patusan his opportunity sat veiled by his side like an Eastern bride waiting to be uncovered by the hand of the master.⁸⁷⁾

Patusan은 한 때 죄지은 자들을 위한 무덤으로 사용되었었다. Marlow가 처음 묘사한 Patusan 중심에 있는 산은 “두 개로 쪼개어진 원추형 산” (“a conical hill that is split in two”) (p. 135)으로서 하품하는 무덤 (a yawning grave) (p. 135)가 같이 불길한 인상을 던진다. 두 원추형 봉우리 사이에 깊게 파인 균열을 원래 하나의 봉우리였음을 보여준다. Marlow가 묘사하고 있는 Patusan의 쪼개진 봉우리 (cleft peak)는 Jim의 영혼이 분열되었음을 암시한다.⁸⁸⁾ Yelton도 자신의 의도와는 달리 Patna호에서 뛰어내렸듯이 꿈과 현실 사이에 Jim의 의식이 분열되었음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한다.

The cleft peak (or twin peaks ; Conrad's equivocation is perhaps deliberate) is the scene of a significant action in the campaign of pacification that marks Jim's rise to predominancy in the affairs of Patusan ; symbolically it seems to figure the split in Jim's consciousness between dream and reality, the ideal and the actual—perhaps also the corresponding cleavage effected in his life by his leap from the *Patna* and his subsequent jump from the stockade into the affairs of Patusan.⁸⁹⁾

2년여만에 찾아 온 Marlow와 함께 계곡 사이로 떠오르는 둥근 달을 바라보면서 Jim은 마치 자기가 그러한 광경을 만들어낸 듯이 자랑한다. 그러나 산봉우리 사이로 떠오르는 달빛은 그가 영위하는 Patusan의 삶이 비현실적임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87) Baines, p. 303.

88) “Dorothy Van Ghent advances an interesting argument :that the split conical hill on Patusan suggests Jim's spiritual cleavage.” Yelton, quoted in *Lord Jim*, p. 480.

89) Ghent, p. 238.

We had watched the moon float away above the chasm between the hills like an ascending spirit out of a grave ; its sheen descended, cold and pale, like the ghost of dead sun-light. There is something haunting in the light of the moon : it has all the dispassionateness of a disembodied soul, and something of its inconceivable mystery. (p. 150)

쌍둥이 정상(twin-peaks) 사이로 떠오르는 환상적인 달은 이상화된 자아(a figure of the ego-ideal)의 상징이다.⁹⁰⁾ 이 달은 Jim의 신부(bridе)에 비유되기도 한다. Brown에게 배신당한 후 Doramin에게 죽은 Jim에 대하여 “살아있는 여인으로부터 도망쳐 그림자 같은 이상과 식을 올렸다.” (“He goes away from a living woman to celebrate his pitiless wedding with a shadowy ideal of conduct.”) (p. 253)라고 Marlow가 말했을 때, 살아 있는 여인은 Jewel이요, 그의 신부는 이상화된 자아로서의 달인 것이다. jewel은 몸에 지니고 다니는 에머랄드로 상징되는 목가적인 사랑의 빛이지만, Jim의 달은 그를 가차없이 그의 운명과 결부시키는 이상화된 자아(ego-ideal)요, 파괴적 요소이다.

Patusan의 달은 Jim의 성공에 대해서 두 가지 상반된 역설적인 의미를 상징하고 있다. 하나는 Tuan Jim이 된 Jim의 긍지(pride)이다. Marlow는 Jim 자신이 멋진 광경을 만들어낸 듯한 태도에서 Patusan에서 이룬 Jim의 긍지를 느낀다.

‘Wonderful effect, said Jim by my side. ‘Worth seeing. Is it not?’

“And this question was put with a note of personal pride that made me smile, as though he had had a hand in regulating that unique spectacle. He had regulated so many things in Patusan—things that would have appeared as much beyond his control as the motions of the moon and the stars. (p. 135)

그러나 그의 긍지(pride) 뒤에는 어두운 달(dark moon)이 던져주는 환영에 함축된 고립(isolation)이 있다.

90) “the rebounding moon, in which he has so much pride, remains in the mind as a figure of the ego-ideal...” Ghent, p. 238.

The moonlight of Patusan is certainly associated with immobility and isolation, and with times when Jim is seriously entranced by his pride and illusions of success. This moonlight comments on the unreality of his aspirations.⁹¹⁾

외면과 내면의 두 자아를 상징하듯이 떠오르는 달은 일견 Jim의 승리를 나타내는 듯하나 거기에서 뿔어져 나오는 빛의 이미지는 현실을 떠난 혼령인 것이다. 그가 Patusan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그가 문명세계로부터 더욱 고립되어 있다는 사실과 원시세계에 갇혀 있음을 의미한다. Marlow는 Patusan을 지배하고 있는 Jim을 보면서도 철저히 고립되어 있는 그의 모습에서 불안감을 떨쳐 버릴 수 없다고 토로한다.

I can't with mere words convey to you the impression of his total and utter isolation. I know, of course, he was in every alone of his kind there, but the unsuspected qualities of the nature had brought him in such close touch with his surroundings that this isolation seemed only the effect of his power. His loneliness added to his stature. (p. 166)

모든 길 끝에 악(devil)이 있듯 고립은 인간의 존재조건으로서 Jim의 성공에 회의를 던지고 있다. 이러한 회의를 Jim이 죄(guilt)의 문제를 불명예(disgrace)로 견지해온 잘못된 인생관에도 기인한다. Jim도 자신의 성공이 내부의 죄의식을 극복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있다.

'I've been only two years here, and now, upon my word, I can't conceive being able to live anywhere else, the very thought of the world outside is enough to give me a fright; because, don't you see', he continued, with down-cast watching the action of his boot busied in squashing thoroughly a tiny bit of dried mud (we were strolling on the riverbank) — 'because I have not forgotten why I came here. Not yet!' (p. 185)

91) Guerard, p. 159.

Jim의 꿈이 파괴적 요소라는 사실은 '암흑의 힘'을 상징하는 Gentleman Brown의 출현으로 증명된다. ("he sails into Jim's history, a blind accomplice of Dark Powers.") (p. 215) Brown은 돈과 식량과 은신처를 얻기 위해 Dain Waris가 지키고 있는 요새를 공격한다. 굶주리고 지친 그의 부하들은 Waris가 지휘하는 원주민들에게 쫓겨 언덕 위로 도망쳐 방어진을 친다.

먼 여행에서 돌아온 Jim은 뜻하지 않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고 Brown과 마주하게 되었다. Brown은 Jim을 보는 순간 본능적으로 반감을 가졌다. Jim은 더러운 땅에 접촉하지 않고 살 수 있다고 믿는 "초월적 인간" ("superior soul") (p. 209)인 반면에, Brown은 Jim과 같이 "때묻지 않으려는 부류의 인간" ("don't-you-touch-sort of fellows") (p. 234)을 파괴하고 싶어하는 사람이다. Brown은 인간 이상의 초자연적인 Jim의 기만적 모습에서 인간다운 속성이 결핍되어 있다고 느꼈다. 그래서 Jim의 도덕적 우월성에 대해 증오한다.

"I could see directly I set my eyes on him what sort of a fool he was", gasped the dying Brown. "He a man! Hell! He was a hollow sham. As if he couldn't have said straight out, "Hands off my plunder!" blast him! That would have been like a man! Rot his superior soul! He had me there—but he hadn't devil enough in him to make an end of me." (p. 209)

Jim은 Brown과 처음으로 마주한 대화에서 자신의 과거를 언급한 듯한 말에 무력해지고 만다.

'What made you come here?' 'You want to know', said Brown bitterly. 'It's easy to tell. Hunger. And what made you?'

"The fellow started at this", said Brown, relating to me the opening of this strange conversation between those two men, separated only by the muddy bed of a creek, but standing on the opposite poles of that conception of life which includes all mankind—The fellow started at this and got very red in the face. Too big to be questioned, I suppose." (p. 231~32)

간교한 Brown은 반영웅적, 반이상적(anti-heroistic, anti-idealistic) 태도로 Jim의 자기 기만적 이상주의의 도덕성을 자극한다. 그는 자신을 쥐(rat)라고 표현할만큼 극단적 현실주의 입장에서 현재의 Jim의 상태와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비교하면서, Jim이 과거에 갖고 있었을지도 모를 과오에 대해서 은근히 암시한다.

"This is as good a jumping-off place for me as another. I am sick of my infernal luck. But it would be too easy. There are my men in the same boat—and, by God, I am not the sort to jump out of trouble and leave them in a d-d lurch". I said... I am here because I was afraid once in my life. Want to know what of? Of a prison. That scares me, and you may know it—if's any good to you. I won't ask you what scared you into this infernal hole, where you seem to have found pretty pickings. That's your luck and this is mine—the privilege to beg for the favour of being shot quickly, or else kicked out to go free and starve in my own way."... (p. 233)

사실 Brown의 처지는 Jim 자신의 과거였다. Jim도 한 때 운명적인 악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도피처를 찾고자 하지 않았는가?

Brown은 Jim이 무력해지는 것을 간파하고서 더 나아가 둘 사이에는 인간 공유의 죄(common guilt)를 지니고 있다고 동류의식을 암시함으로써 마침내 심리적으로 그를 쓰러뜨리고 만다.

He asked Jim whether he had nothing fishy in his life to remember that he was so damnedly hard upon a man trying to get out of a deadly hole by the first means that came to hand—and so on, and so on, and so on. And there ran through the rough talk a vein of subtle reference to their common blood an assumption of common experience ; a sickening suggestion of common guilt, of secret knowledge that was like a bond of their minds and of their hearts. (p. 235)

Jim은 Brown을 자신과 같은 부조리한 환경의 희생자로 여기고 그와 자신을 동일시한다. 이로 인해 Jim은 그를 용서하고 풀어준다. Brown은 Jim의 깊은 내면 속에 숨어 있는 죄의식의 발로로서 '암흑의 힘'의 현현(epiphany)인 것이다.⁹²⁾ 결국 Jim의

92) Ibid., p. 234.

이성을 무너뜨린 것은 자기동일시이다.

G. Morf에 따르면 자기동일시는 제 2의 자아에 관대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점은 타인에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Identification is characterized always by an extraordinary indulgence for the second self, an indulgence which must of necessity remain incomprehensible to any other person. When we feel a profound sympathy with or pity for somebody, we identify ourselves always *more or less* with the person who inspires us with these feelings, but the identification hardly ever becomes so complete that the subject loses himself in the object.⁹³⁾

악(evil)은 그의 내부에 있으므로 그 악을 단순히 물리칠 수 없다. Brown이 나쁜 사람인가 하고 Jewel이 물었을 때도 Jim은 “사람은 때때로 나쁘게 행동한다.” (“Men act badly sometimes without being much worse than others.”) (p. 240)라고 대답한다. Brown을 비난하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것이다. Brown을 옹호하는 Jim의 태도는 자신 내부의 악을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자아의 억눌림을 해방시켜줌으로써 죄의식을 극복하고자 한 것이다.⁹⁴⁾

Brown은 Jim과의 약속을 배반하고 Patusan 주민을 살해하고 도망친다. Jim은 이로 인하여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할 선택의 순간을 맞는다. 그는 도망치거나 맞서 능히 싸울 수도 있었다. Jewel은 “싸우라” (“Fight”) (p. 249)고 외친다. 그러나 Jim은 싸워서 얻을 목적도 없고, 잃을 것도 없으며, 도망칠 곳도 없다. 결국 그가 취한 선택은 도망도, 싸움도 아닌 죽음이였다. 그는 ‘싸움의 거부’(not to fight)를 선택한 것이다. Jim이 Doramin과 싸우기를 거부한 것은 과거 Patna호에서의 수동적 자세와는 차원이 다르다. Patna호에서의 행위는 자신의 선택을 유보한 채 무의식적인 힘에 맡겨 버린 것이지만 지금의 Jim의 행위는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인 것이다.

Jim은 스스로 나아가 Doramin의 손에 죽음으로써 자신의 낭만적인 꿈을 끝까지

93) Morf, . 157.

94) Ibid.

추구하고자 하였다. 그는 자신의 그늘진 세계의 요구에 충실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기에 그는 죽어가면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당당한 눈길을 던질 수 있었다.

They say that the white man sent right and left at all those faces a proud and unflinching glance. Then with his hand over his lips he fell forward, dead. (p. 253)

Jim의 죽음에는 Jim 나름의 논리적 일관성이 있다. 그는 우쭐한 이기주의(exalted egoism)에 의지하여 낭만적인 꿈을 추구해왔는데 그가 마지막 순간에 택한 죽음마저도 그러한 생활방식의 연장선상에 머무른 행위인 것이다. 그의 꿈은 낭만성으로 가득차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 실현되기 어렵다. 자아를 실현하고자 했던 그의 꿈은 내부의 본능적 부조리로 인하여 현실과 조화될 수가 없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자신의 독자적인 자아의 세계를 지키고자 했던 Jim으로서는 죽음을 택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Stein의 비유에 따르자면 Jim은 성급히 물위로 기어오르려 했던 “미숙한 사람”(“inexperienced man”) (p. 130)으로서 자신의 그림자의 세계를 쫓은 것이다. 그는 자신의 세계가 요구하는 바에 기꺼이 충실하고자 했고 일관된 낭만적 자아를 존재가치로 여기고자 했다.

Jim의 일관된 태도는, “참된 것이라도 믿는 바를 지켜나가야 한다”(“What I believe to be true I must therefore preserve. What seems to me so obvious, even against me, I must support”)⁹⁵⁾는 Camus의 주장과 부합되며, ‘인간의 본질은 자신의 결단으로 시도한 일련의 행위(a series of undertakings)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한 Sartre의 견해와도 같다. 중요한 것은 행위의 총체(total commitment)인 것이다.

Nevertheless, when one says, “You are nothing else but what you live”, it does not imply that an artist is to be judged solely by his works of art, for a thousand other things contribute no less to his definition as a man. What we mean to say is that a man is no other than a series of undertakings, that he is the sum, the

95) Camus, *The Myth of Sisyphus*, p. 38.

organization, the set of relations that constitute these undertakings.⁹⁶⁾

그러나 Jim의 죽음은 객관적 관점에서 볼 때 환상적인 자아를 좇은 자기도취적 행위였다. Patusan에서의 새로운 삶은 Jim의 낭만적 자아관을 조금도 바꾸어 놓지 못했고 그의 선천적 이기주의는 그대로 그의 사고방식이나 행동방식을 지배하고 있었던 셈이다. 그가 Doramin의 사격을 받고 쓰러지면서도 좌우의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고 굽힘없는 눈초리”(“a proud and unflinching glance”) (p. 253)를 보낼 수 있었던 것도 그가 낭만적 자아에 충실할 수 있다는 점을 스스로 높이 평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그는 환상적인 자아를 추구함으로써 자신으로부터는 물론 현실세계로부터 철저히 고립되었고, 그 고립은 죽음을 낳았던 것이다. “누가 알겠는가”(“Who knows?”) (p. 253)라는 Marlow의 자문은 Jim의 죽음에 회의를 던진다. 당대에 명성을 누렸던 Stein박사도 소중히 여기던 나비와 작별을 해야 했듯이, 자신의 자아를 절대적 가치로 여겼던 Jim도 고립 속에서 비극적 종말을 맞이한 것이다.



96) Ellmann, p. 854.

VI. 결 론

20세기 현대소설이 뿌리를 내리는데 선도적 역할을 했던 Conrad는 종래의 소설가들과는 달리 인간의 내면세계를 탐구함으로써 인간의 개체성과 삶의 본질적 의미를 근원적으로 규명하고자 했다. 20세기가 열리는 해(1900년)에 발표된 *Lord Jim*은 전형적인 현대소설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작품을 통해 부조리 속에 던져진 현대인의 고립적 상황을 심리적 측면에서 그리고자 했다.

Conrad는 회의적인 시각으로 인간이 처한 상황에 접근하고 있다. 이는 무신론적 우주관에 바탕을 둔 작가의 비관주의가 작품에 반영된 것이다. 작가의 어두웠던 인생체험은 인간과 사회의 개선 가능성에 강한 불신을 가져왔다. Jim이 속해 있는 인간세계는 쥘, 파충류, 투구벌레라 불릴 수 있는 악의 화신들로 가득차 있다. 그 속에 던져진 Jim은 현실과 유리된 채 고립감에 휩싸인다.

그러나 Conrad의 비관주의는 이상가치의 추구에 의해 극복된다. 이상가치는 현실에서 추구될 때 Jim의 꿈으로 나타난다. 그것은 개인의 꿈과 이상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Conrad는 작품에서 Jim의 꿈을 통해 인류의 구원 가능성을 실험하고 있다 하겠다.

Jim의 꿈은 다른 아닌 독자적인 자아세계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Stein에 따르면 인간은 태어나면서 현실에 안주하지 못하고 자신을 초월하고자 꿈을 지닌다는 것이다. 그 꿈은 자유의지에 의하여 자신의 존재이유를 스스로 결정하려는 실존가치이며 궁극적으로 자아실현에 목표를 두고 있다. 즉 Conrad는 Jim의 문제를 보편적 인간의 존재문제로 규정하고 개인의 실체를 자아라는 측면에서 규명하고자 한 것이다.

Conrad의 이러한 태도는 Sartre, Nietzsche, Camus를 중심으로 한 무신론적 실존주의 입장과 그 맥을 같이한다. 무신론적 실존주의자들은 고정적이고 절대적인 인간 본질을 부정하고 실존적 인간의 초월적 특성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서 존재의 중심은 자아이며 초월의 핵심은 독자적인 자아세계의 추구에 있다.

실존적 이상가치를 지닌 Jim의 꿈은 비윤리적 현실세계에서 한계성을 드러낸다. Jim을 둘러싸고 있는 부조리한 상황은 그를 끊임없이 유혹하며 모순 속에 빠뜨리고 Jim의 안전과 절대적 확신감을 위협한다. 그러나 Conrad는 인간 부조리의 근원을 인간 심리 내부에 존재하는 악에 두고 있다. 그것은 자식 보존본능에 입각한 제 2의 자아이기도 하다. Jim을 파멸로 이끈 또하나의 요소는 꿈이 지닌 파괴성이다. 꿈은 그 자체가 현실을 넘어서려는 초월성을 지니고 있어서 현실세계에서 실현되려면 현실과의 갈등을 빚지 않을 수가 없다. Jim은 이러한 내적·외적 부조리로 인해 심한 고립감에 빠진 것이다.

Jim은 고립감 속에서 무(nothingness)를 경험한다. 그는 의식(consciousness)을 통해 부정적 무한성 속에서 긍정적 무라는 가능성의 세계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는 Patna호 사건으로 고립과 소외의 고통을 겪었지만 이러한 고통의 경험을 통해 절대적 진리(absolute Truth)에 눈을 뜨게 되었다.

Stein의 도움으로 기회를 얻은 Jim은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여 마침내 Patusan이라는 원시세계에서 'Tuan Jim'의 칭호를 얻게 된다. 그러나 승리 이면에는 극심한 도덕적 고립이 숨겨져 있다. 깨끗한 경력(clean slate)을 원했던 Jim의 바램에서 드러나듯이 그는 자신의 죄(guilt)를 불명예(disgrace)로 보고 명예를 회복하는 데만 노력한 것이다. Jim이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식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것은 부조리의 근원이 Jim 내부의 또다른 자아, 즉 암흑의 힘(dark power)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실은 Gentle Brown의 등장으로 증명된다. Jim은 인간공유의 죄(common guilt)를 암시하는 Brown에 대해 자기동일시를 일으키고 Brown을 풀어주게 된다. Jim은 그를 통해 자신 내부의 악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것을 해방시키고 싶었던 것이다. 그래서 Jim은 한층 참된 자아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었다.

Jim은 싸우기를 거부하고 Doramin의 손에 죽음으로써 일관되게 자신의 꿈을 추구하고자 했다. 그의 마지막 행위는 자신의 그늘진 세계의 요구에 충실하고자 함이요, 죽음을 통해 자신을 묶어온 고립에서 벗어나 존재의 폐허 위에 자신의 꿈에 입각한 자아의 세계를 실현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Jim의 행위는 결과적으로 Patusan 공동체의 도덕적 결속을 와해시켰다. 그는 공동체의 안전보다 자신의 이기주의적 자아의 세계를 쫓음으로써 비극적 종말을 맞는다. 그의 죽음에는 자기도취적 영웅주의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환상적인 자아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개인주의에 입각한 자기 개인의 의식수준에 머무르게 됨으로써 자신과 현실세계로부터 고립될 수 밖에 없었다. 그의 고립은 결국 죽음을 낳은 것이다.

Conrad가 고립된 자아세계의 꿈을 쫓던 주인공으로 하여금 불행한 죽음을 맞도록 한 것은, 이 작가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한 것이 개인주의적 주체성(individual subjectivity) 보다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상보적 주체성(inter-subjectivity)임을 말해주는 것 같다. 즉 개인의 주관적인 선택이나 행위는 자신의 이상가치 실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인간들에게 부합되는 윤리성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전체 인류에 대한 Conrad의 배려는 실존적 휴머니즘(existential humanism)을 지향한 Sartre의 정신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



Bibliography

- Baines, Jocelyn. *Joseph Conrad : A Critical Biography*. Middlesex, Harmondsworth : Penguin Books, 1960.
- Berthoud, Jacques. *Joseph Conrad : The Major Phase*. Cambridge : Cambridge Univ. Press, 1978.
- Camus, Albert. *The Myth of Sisyphus*. tr. Justin O'Brien. New York : Alfred A. Knopf, 1955.
- Clifford, Hugh. "The Genius of Mr. Joseph Conrad." *North American Review*, CLXXIII, June, 1904.
- Conrad, Joseph. *The Nigger of the Narcissus*. New York : Doubleday, Page & Co., 1925.
_____. *Notes on Life and Letters*. New York : Doubleday, Page & Co., 1925.
_____. *Lord Jim*. Edited by Thomas C. Moser. New York : W.W.Norton & company, 1968.
- Curle, Richard. "Joseph Conrad." *Virginia Quarterly Review*, 10, 1934.
- Daiches, David. *The Novel and the Modern World*. Chicago : Univ. of Chicago Press, 1960.
- Ellmann, Richard and Feidelson, Charles, Jr. *The Modern Tradition : Backgrounds of Modern Literature*. New York : Oxford Univ. Press, 1965.
- Gee, John A. and Strum, Paul J. ed. *Letters of Joseph Conrad to Marguerite Poradowska*. New Haven : Yale Univ. Press, 1940.
- Ghent, Dorothy Van. *The English Novel : From and Function*. New York : Rinehart and Co., 1953.
- Guerard, Albert J. *Conrad the Novelist*. Cambridge : Harvard Univ. Press, 1958.
- Hay, Eloise Knapp. "Lord Jim : From Sketch to Novel." *Comparative Literature*, XII, Fall, 1960.

- Haidegger, Martin. "What is Mataphysics?" *Existence and Being*. Translated by R.F.C. Hull and Alan Crick. London : Vision Press, 1959.
- Jean-Aubry, Gérard, ed. *Joseph Conrad : Life and Letters*. New York : Doubleday, Page & Co., 1927.
- Kierkegaard, Sorren. *Eithor/Or*. Translated by Walter Lowrie. Prinston : Prinston Univ. Press, 1944.
- Krieger, Murray. *The Tragic Vision : Variations on a Theme in Litarary Interpretation*. New York : Holt, Rinehart and Winston, 1960.
- Morf, Gustav. *The Polish Heritage of Joseph Conrad*. New York : Haskell House, 1965.
- Najder, Zdzislaw, ed. *Conrad's Polish Background : Letters to and from Polish Friends :* Translated by Halina Carroll. London : Oxford Univ. Press, 1964.
- Nitsche, Friedrich. *Beyond Good and Evil*, Translated by Marianne Cowan. Chicago : Henry Regnery Company, 1955.
- Russel, Bertrand. "Joseph Conrad." Portraits from Momory, 5. *Listener*, 50. September, 1953.
- Sartre, Jean-Paul. *Existentialism and Humanism*. London : Methuen & Co., 1984.
- _____. *Being and Nothingness*, ed. Hazel Barnes. London : Methuen, 1957.
- Sherry, Norman, ed. *Conrad : The Critical Heritage*. London : R & RP., 1973.
- Tanner, Tony. "Butterflies and Beetles-Conrad's Two Truths." *Chicago Review*, XVI. Winter-Spring, 1963.
- _____. *Conrad : Lord Jim*. Southampton : The Camelot Press, 1975.
- Warren, Robert Penn. "On Nostromo." *The Art of Joseph Conrad : A Critical Symposium*, ed. R. W. Stallman Athens, Ohio : Ohio Univ. Press, 1982.
- Watts, Cedric T., ed *Joseph Conrad's Letters to R. B. Cunninghame Graham*. Cambridge : The University Press, 1969.
- Yelton, Donard C. *Nimesis and Metaphor : An Inquiry into the Genesis and Scope of Conrad's Symbolic Imagery*. Quoted by Thomas C. Moser. New York : W. W. Norton & Co., 1968.

< Abstract >

The Problem of Self-realization in *Lord Jim*

English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Lord Jim[1900], published at the turning point in the century, is a prototype of the modern novels. Conrad tried to portray the isolating conditions of a modern man who is hurled into the absurd world. He dealt in a new point of view with ideal value. And further he was regarded to deal with the problem of existence which is shared in human life.

The ideal value he referred to is the indeterminable and inconclusive notion. It is proved in many data that the central meaning of his ideal value is 'human solidarity and fidelity' which restrain his pessimistic stance. Ideal value takes the concrete shape of Jim's dream in the real world. It is individual's dream and ideal, but ultimately Conrad is, in *Lord Jim*, experimenting the probability of human salvation through Jim's dream.

Jim's dream is the presentation of the will to realize his self. According to Stein, a man that is born does not stay in reality, but falls into dream in order to transcend himself. The dream is regarded as an existential value that a man tries to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July, 1990.

determine his being by free will, and the final aim is self-realization. So to speak, Conrad regarded Jim's problem as 'how to be', the problem of existence, and examined individual's entity in the light of 'self'.

The attitude of Conrad is in collusion with that of atheistic existentialists such as Sartre, Nietzsche, and Camus. As the proposition that 'Existence precedes essence,' shows, they deny the absolute essence of human being, and emphasize the transcendence of existence. They claim that the core of existence should be 'self' and the aim of its transcendence be self-realization.

Jim's dream, which has existential ideal value, faces the limitations in the real world. They are the universal conditions of existence which are determined *a priori*. They are condensed into the absurdity.

Conrad believes that the source of all absurdities lies in internal evil, the second self which takes root in the instinct of self-preservation. It is presented as the destructive element in Jim's dream. The dream itself, which has the transcendence, is above the reality. When a man tries to realize his dream, he cannot avoid the feud with the reality. Jim has fallen into the extreme solitude because of this absurdity.

Jim has experienced nothingness in the solitude. He could advance from the negative infinity toward affirmative nothingness, the feasible world. He was put in anguish as a result of his inaction on Patna, but he could search for 'absolute Truth' or 'Beauty itself'. He discovered his self and confirmed the real value of existence through the absurdity.

Jim took another opportunity by the help of Stein, and finally he was entitled 'Tuan Jim' in Patusan. But behind his success, Jim's extreme isolation was concealed. He had regarded his jump from Patna not as the guilt, but as the disgrace, so he did not overcome the guilt-complex in spite of his success.

Gentleman Brown's appearance proved it. Cunning Brown insinuated the common guilt which made Jim identify himself with him and set him free. The result means that Jim acknowledged his guilt. It seems that he approached the real entity of 'self' further.

Jim choosed 'not to fight' and accepted the death through which Jim could keep hold on his eternal constancy. 'His shadowy ideal of conduct' was faithful to the claim of his own world of shades. He willed to free himself from isolation and realize the real self above the ruins of existence.

Jim's last action resulted in the destruction of moral solidarity in Patusan community. He put his exalted egoism ahead of human solidarity, and he chose the world of romantic self. But he assumed the responsibility for that result, which paradoxically shows that Conrad sought not for the individual subjectivity, but for the inter-subjectivity from the origin of Sartre's existential humanism.

